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석사학위논문

고등학생의 부·모애착과
삶의 만족 및 학교적응간의 관계에서
감사성향의 매개효과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상담심리전공

김 선 희

2014년 8월

고등학생의 부·모애착과
삶의 만족 및 학교적응간의 관계에서
감사성향의 매개효과

지도교수 김 성 봉

김 선 희

이 논문을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4년 8월

김선희의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_____ (인)

위 원 _____ (인)

위 원 _____ (인)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2014년 8월

<국문초록>

고등학생의 부·모애착과 삶의 만족 및 학교적응간의 관계에서 감사성향의 매개효과

김 선 희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상담심리전공

지도교수 김 성 봉

본 연구*는 고등학생의 부·모애착과 삶의 만족 및 학교적응간의 구조적 관계에서 감사성향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고자 하였으며,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 연구문제 1. 부·모애착, 감사성향, 삶의 만족, 학교적응 간에는 어떠한 관련이 있는가?
- 연구문제 2. 부애착과 삶의 만족 및 학교적응 사이의 관계를 감사성향이 매개하는가?
- 연구문제 3. 모애착과 삶의 만족 및 학교적응 사이의 관계를 감사성향이 매개하는가?

위의 연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내에 소재한 일반계 고등학교 5곳을 유의 표집하여 남녀 고등학생 548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실시하였다. 최초 634명을 대상으로 부·모 애착, 감사성향, 삶의 만족, 학교적응 검사를 실시하고 그 중 548부를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측정도구는 부모애착을 측정하기 위해 Armsden과 Greenberg(1987)의 부모 및 또래 애착척도(IPPA)를 수정한 개정본(IPPA-R)을 옥정(1998)이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으며, 감사성향을 측정하기 위하여 사용한 검사 도구로는 McCullough 등(2002)이 개발하고, 권선중 등(2006)이 번안하여 타당화한 한국판 감사

* 본 논문은 2014년 8월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위원회에 제출된 교육학 석사학위논문임.

성향 척도(K-GQ-6)를 사용하였다.

삶의 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사용한 검사 도구로는 Diener 등(1985)의 삶의 만족 척도(SWLS)를 김정호(2007)가 변안한 것을 사용하였으며, 학교적응을 측정하기 위하여 사용한 검사 도구로는 김용래(2000)가 개발한 학교적응척도를 사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for Windows 18.0과 AMOS 20.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을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얻은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 애착, 감사성향, 삶의 만족, 학교적응 간에는 유의미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애착은 감사성향, 삶의 만족, 학교적응과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 모애착도 감사성향, 삶의 만족, 학교적응과 정적상관을 보였다. 감사성향은 삶의 만족, 학교적응과 정적 상관을 보였다.

둘째, 부애착과 삶의 만족 사이의 관계는 감사성향에 의하여 완전매개 되었으며, 부애착과 학교적응 사이의 관계도 감사성향에 의하여 완전매개 되었다.

셋째, 모애착과 삶의 만족 사이의 관계는 감사성향에 의하여 부분매개 되었으며, 모애착과 학교적응 사이의 관계도 감사성향에 의하여 부분매개 되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볼 때 고등학생의 삶의 만족을 높이고 학교적응을 증진시키기 위한 상담 및 교육적 개입을 할 때 단기간에 변화시키기 어려운 부모애착의 안정성 대신 감사성향에 대한 개입을 하면 삶에 더 만족하고 학교적응을 높이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목 차

I. 서 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 문제 및 가설	5
3. 용어의 정의	6
II. 이론적 배경	8
1. 부모애착	8
2. 감사성향	13
3. 삶의 만족	14
4. 학교적응	15
5. 부모애착, 감사성향, 삶의 만족, 학교적응 간의 관계	17
III. 연구방법	21
1. 연구모형	21
2. 연구대상	22
3. 연구도구	22
4. 연구절차	25
5. 자료처리 및 분석	25
IV. 연구결과 및 해석	28
1. 주요 변인들의 기술적 통계량	28
2. 탐색적 요인분석	29

3. 부·모 애착, 감사성향, 삶의 만족도, 학교적응의 상관관계	30
4. 측정모형 분석	32
5. 구조모형 분석	35
6. 최종모형에 대한 매개효과의 유의도 검증	39
V. 논의 및 결론	41
참고문헌	47
Abstract	60
부 록	63

표 목 차

표 III-1. 연구대상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22
표 III-2. 부·모 애착 척도 문항구성과 신뢰도	23
표 III-3. 학교적응 척도 문항구성과 신뢰도	24
표 IV-1. 주요 변인들의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28
표 IV-2.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와 신뢰도 분석 결과	29
표 IV-3. 부·모 애착, 감사성향, 삶의 만족도, 학교적응의 상관관계	31
표 IV-4. 측정모형의 적합도 결과	33
표 IV-5. 측정모형의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34
표 IV-6. 구성개념 간의 판별타당도 분석 결과	35
표 IV-7. 연구모형의 분석 결과	37
표 IV-8. 수정모형의 분석 결과	38
표 IV-9. 연구모형과 수정모형 간 적합도 분석	38
표 IV-10. 최종모형에 대한 효과분해 결과	40

그림 목 차

그림 III-1. 가설적 연구모형	21
그림 IV-1. 측정모형 분석결과	32
그림 IV-2. 연구모형 분석결과	36
그림 IV-3. 수정모형 분석결과	37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인간은 누구나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원한다. 삶의 만족도는 주관적 안녕감, 행복감, 삶의 질 등 여러 용어가 혼용되어 사용되지만(김신영, 백혜정, 2008) 삶에 대한 만족스러움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비슷하다. 삶의 만족에 대한 가치 기준은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모두가 만족스러운 삶을 살기를 원한다. 이는 청소년도 예외는 아닐 것이다.

하지만, 우리 청소년들의 삶의 만족도는 매우 낮으며 긍정적 발달의 적신호인 부적응적 행동이 많이 표출되고 있다(김영민, 임영식, 2013). 국가별 삶의 만족도 조사결과(The World Values Survey Databank)에 따르면 한국 청소년들의 삶의 만족도가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다(청소년백서, 2012).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학생 7,1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3년 한국 어린이-청소년 행복지수 국제비교연구(염유식 외, 2013)’에서도 우리나라 청소년의 주관적 행복지수가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주관적 행복지수가 3년 연속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결과로써,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삶의 만족도가 심각한 수준으로 떨어져 있음을 드러낸 것이라 할 수 있겠다. 연령과 상위 교급으로 올라갈수록 주관적 행복 수준이 낮아졌고, 스트레스 수준이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고등학생의 경우 성적 및 입시로 인한 스트레스 점수가 다른 교급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 가출충동 경험에 대해 응답자의 25.2%가 가출충동을 느껴본 적이 있고, 응답자의 23.0%가 실제로 가출을 시도해본 적이 있으며, 자살충동 경험에도 응답자의 22.7%가 자살충동을 느껴본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 역시 고등학교로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경험률이 증가하였다.

청소년에게 있어 삶의 만족과 더불어 중요한 발달과제 중 하나가 학교생활에 성공적으로 적응하는 것이다(Newman & Newman, 1984; Rutter, 1985a,

1985b; 문은식, 2002; 이순성, 2010; 임경희, 2010; 이예은, 2013).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하루 중 대부분의 시간을 학교에서 생활하며, 바람직한 학교생활 적응은 청소년기 이후의 심리사회적인 발달에 상당한 영향을 주므로 청소년기의 적응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김소미, 2013; 좌현숙, 2012; 성선진, 2010; 김순규, 2006; 박현선, 1998). 하지만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펴낸 2013년 교육통계연보에 따르면 2012년 3월부터 2013년 2월까지의 고등학교 학업 중단자는 총 34,934명이며, 이 중 50%에 해당하는 17,454명이 학교부적응에 의한 학업 중단자로 나타났다.

청소년의 삶의 만족 및 학교적응과 관련 있는 변인으로 부모와의 애착을 들 수 있다. 애착은 어린 시기에 부모와의 관계를 통해 형성되고, 애착의 질은 일종의 내적 작동 모델(internal working model)로 기능하면서, 개인의 능동적, 긍정적 적응을 도와 건강한 발달을 도우며, 성인기까지 지속하는 경향이 있다(Bowlby, 1988). 애착과 삶의 만족 간의 관계를 살핀 연구들은 부모에 대한 안정애착을 형성할수록 삶의 만족이 높아진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홍선덕, 2014; 문서연, 2013; 이미순, 2012; 김용환, 2011; 고영남, 2011). 또한 애착과 학교적응 간의 관계를 살핀 연구에서도 부모 애착이 안정적일수록 학교적응이 높아진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김수선, 2013; 이미순, 2012; 임수진, 안진홍, 2012; 김명옥, 2011; 채영이, 2006; 김귀숙, 정영옥, 이나혜, 2003; 유복귀희, 2003).

이러한 선행연구들의 결과에서 부모애착이 삶의 만족과 학교적응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부모애착과 삶의 만족 및 학교적응 사이에 다른 심리적 요인이 작용하여 영향을 미쳤을 것에 대한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특히 매개변인은 예측변인과 결과변인의 관계를 설명해 주는 변인으로써, 예측변인이 “어떻게” 또는 “왜” 결과변인을 예측 또는 야기하는지 궁금할 때 바로 그 “어떻게”와 “왜”에 해당된다(서영석, 2010). 따라서 부모애착과 삶의 만족 및 학교적응의 관계를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매개변인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최근 연구에서 부모애착이 삶의 만족 혹은 학교적응의 관계를 매개하는 제3의 변인들이 작용하는 결과가 보고되고 있는데, 먼저 부모애착과 삶의 만족의

관계를 매개하는 변인으로 또래애착과 낙관성(박민경, 2014), 정서지능과 친사회적 행동(이경미, 2013), 감사(김양운, 2013), 자아탄력성과 친구지지(고혜영, 2012; 안지영, 오미경, 김지신, 2011), 낙관성(노영천, 2012), 자기효능감(한순선, 2011), 기본심리욕구(황아람, 2010)등이 연구되었다. 또한 부모애착과 학교적응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 변인으로 자아존중감(최부일, 2014), 정서지능(홍진희, 2013; 김승엽, 2013), 또래애착(김민수, 2013), 스트레스 대처방식(변지희, 2013), 정서조절(임수진, 안진홍, 2012), 학업 및 사회적 자기효능감(김명옥, 2012), 자아탄력성과 스트레스(오미경, 안지영, 김지신, 2011), 공격성과 사회적지지(유병선, 이지연, 이채희, 2008), 수평적 대인관계 성향(신현숙, 임말란 2005)등이 연구되었다. 이처럼 삶의 만족이나 학교적응에 미치는 애착의 영향력은 연구대상 및 변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지속적인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강승희, 2010).

최근 들어 긍정심리학이 주목을 받기 시작하면서 낙관성, 희망, 감사, 용서와 같은 긍정적 성격특질에 대한 연구들(김소미, 2013; 김예진, 2012; 강주리, 2010; 김낭영, 2009; 이지선, 2009; 오혜진, 2007)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 감사(Gratitude) 성향은 발달과정에서 부모가 자녀를 격려하고 지지하면서 안정적인 애착관계를 형성할 때 향상될 수 있음이 밝혀졌다(Baumgartner-Tramer, 1938; Grief & Gleason, 1980; Graham, 1988). 하승수와 권석만(2011)의 연구에서도 감사성향은 온정적 부모-자녀관계에서 정적 상관을 보였다. 그리고 평소에 감사를 많이 느끼는 사람들은 행복감이 높고 친사회적 행동을 많이 하며 대인관계가 유연하고 스트레스 수준이 낮다(McCullough, Emmons, & Tsang, 2002). 박소정(2009)의 연구에서는 감사성향이 높을수록 주관적 안녕감도 증가하였으며,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김예진(2012)의 연구에서는 애정적인 부모-자녀 관계와 행복감의 관계에서 감사성향이 매개하였으며, 대학생들 대상으로 한 김양운(2013)의 연구에서도 부모애착과 삶의 만족 간에 감사성향이 매개하였다. 한편 임경희(2010)의 연구에서는 감사성향이 높을수록 학교적응이 높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들을 통해서 감사는 삶의 만족과 학교적응을 높인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감사는 부모애착과 삶의 만족 및 학교적응 관계에서 매개변인으로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초기 애착 연구의 대부분이 어머니와의 관계에 초점을 두어 상대적으로 아버지와의 관계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다(Cabrera, Tamis-LeMonda, Bradley, Hofferth, & Lamb, 2000; 안상미, 방희정, 2013, 재인용). 하지만 최근 연구에서는 부애착과 모애착의 영향력이 서로 다른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Ross & Fuertes, 2010). 따라서 애착 변인을 부모로 통합하여 살펴보기보다는 부애착과 모애착으로 구분하여 개별 영향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한 부·모애착과 삶의 만족 간의 관계에서 감사성향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연구(김양운, 2013; 김예진, 2012)는 있지만 각각 대학생과 중학생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게다가 부·모애착과 학교적응과의 관계에서 감사성향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연구는 더 더욱 드물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부·모 애착을 예언변인으로, 삶의 만족과 학교적응을 결과변인으로, 감사성향을 매개변인(mediator)으로 설정하여 구조적 관계를 살펴보고 구조모형의 적합도를 검증하여, 고등학생의 부·모애착과 삶의 만족 및 학교적응의 관계에서 감사성향의 매개효과가 유의한지를 밝히고자 한다. 특히 애착변인을 부애착과 모애착으로 각각 구분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통해서 고등학생들의 삶의 만족과 학교적응을 높이기 위해 어떠한 개입이 필요한지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문제 및 가설

본 연구의 연구문제 및 가설은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부·모애착, 감사성향, 삶의 만족, 학교적응 간에는 어떠한 관련이 있는가?

가설 1. 부·모애착, 감사성향, 삶의 만족, 학교적응은 서로 상관관계가 있을 것이다.

연구문제 2. 부애착과 삶의 만족 및 학교적응 사이의 관계를 감사성향이 매개하는가?

가설 1. 부애착과 삶의 만족 사이의 관계를 감사성향이 매개할 것이다.

가설 2. 부애착과 학교적응 사이의 관계를 감사성향이 매개할 것이다.

연구문제 3. 모애착과 삶의 만족 및 학교적응 사이의 관계를 감사성향이 매개하는가?

가설 1. 모애착과 삶의 만족 사이의 관계를 감사성향이 매개할 것이다.

가설 2. 모애착과 학교적응 사이의 관계를 감사성향이 매개할 것이다.

3. 용어의 정의

본 연구에서 사용한 용어들을 정의하면 다음과 같다.

가. 부모애착

애착(attachment)은 한 개인이 자신과 가장 가깝다고 느끼는 중요한 타인에 대한 지속적이고 강한 정서적 유대로써(Bowlby, 1973), 부모애착은 자녀와 부모 사이에 형성된 정서적 유대를 뜻한다.

본 연구에서는 Armsden과 Greenberg(1987)의 부모 및 또래 애착척도(IPPA)를 수정한 개정본(IPPA-R)을 옥정이 변안한 것으로 측정한 점수를 의미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애착정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위요인은 신뢰감, 의사소통, 소외감으로 구성되었다.

나. 감사성향

감사(Gratitude)는 타인이나 사물에 의해 얻게 된 이익, 혹은 자연에 의한 평화로운 축복의 순간 등을 선물로 받아들이며 고마움과 기쁨으로 반응하는 마음상태이며(Emmons, 2004), 자신에게 이익을 준 특정 대상에 대해 인식하여 느껴지는 정서로 적응적인 행동 경향성을 가진다(노지혜, 2005). 감사성향(grateful disposition)은 비교적 지속적이며 안정적인 정서특성(affective trait)으로, 자신이 획득한 긍정적 경험에서 타인의 기여를 인식하고 긍정적 감정으로 반응하는 일반화된 경향성을 뜻한다(McCullough, Emmons, & Tsang, 2002).

본 연구에서는 McCullough(2002)이 개발하고 권선중 등(2006)이 변안하여 타당화한 한국판 감사 성향 척도(K-GQ-6)로 측정한 점수를 의미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감사성향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 삶의 만족

삶의 만족(life satisfaction)은 개인이 자신의 삶에 대한 만족 정도를 인지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의미하며, 자신의 삶을 잘 수행해 온 것에 대해 스스로 만족함을 의미한다(Diener & Fujita, 2005).

본 연구에서는 Diener 등(1985)의 삶의 만족 척도(SWLS)를 김정호(2007)가 번안한 것으로 측정한 점수를 의미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삶의 만족 정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라. 학교적응

학교적응은 학생 개인이 모든 학교환경으로부터 유발되는 스트레스나 문제 상황에 융통성 있고 유연하게 대처하며, 자신의 욕구 충족과 성장을 위해 자신과 학교환경을 효과적으로 변화시킴으로써 학교환경과 개인 사이에 조화로운 균형을 이루어나가는 역동적인 상호작용 능력을 의미한다(성선진, 2010).

본 연구에서는 김용래가 개발한 학교적응 척도의 점수를 의미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학교적응 정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위요인으로 학교환경적응, 학교교사적응, 학교수업적응, 학교친구적응, 학교생활적응으로 구성되었다.

마. 매개효과

예언변인(predictor variable)이 “어떻게” 혹은 “왜” 결과변인을 야기하는지에 대해 궁금할 때, 매개변수가 바로 “어떻게”와 “왜”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서영석, 2010). 즉, 매개효과(mediating effect)는 예언변인과 결과변인의 관계를 설명하는 매개변인(mediator)의 효과를 말한다. 어떤 변인이 유의한 매개효과를 갖는다면, 이 변인은 예언변인이 결과변인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게 하는 생성기제(the generative mechanism)의 기능을 한다고 볼 수 있다(Baron & Kenny, 1986; 노혜숙, 2008, 재인용).

II. 이론적 배경

이 장에서는 애착이론에 기초하여 안정애착을 형성한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하여 왜 더 감사하는 마음이 크고, 삶에 더 만족하게 되는지에 대하여 문헌 검토를 통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특히 본 연구는 안정애착을 형성했을수록 삶에 만족하고 학교적응을 잘 하며, 이러한 변인들 간의 관계는 감사성향이라는 변인에 의하여 매개되는지에 대해 구조적 모형을 수립하고 자료에 대한 적합성을 알아보고자 한다. 이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 장에서는 먼저, 애착에 대하여 알아보고, 둘째, 감사성향에 대하여 알아보고, 셋째, 삶의 만족에 대하여 알아보고, 넷째, 학교적응에 관하여 알아보고, 다섯째, 애착과 감사성향과 삶의 만족과 학교적응의 관계에 대하여 문헌들을 검토한 후 본 연구의 모형을 도출하고 제시하고자 한다.

1. 부모애착

가. 애착의 개념

애착(attachment)이라는 용어는 Bowlby(1958)에 의해 처음 사용되었으며, 한 개인이 자신과 가장 가깝다고 느끼는 중요한 타인에 대한 지속적이고 강한 정서적 유대관계를 뜻한다(Bowlby, 1973). 애착은 주 양육자와 맺는 최초의 사회적 반응으로 평생에 걸쳐 인간의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Ainsworth(1989)는 애착이 시간이 지나도 비교적 안정된 성향을 갖는다고 하였다.

애착은 개인의 여러 가지 애착상태와 질을 일컫는 용어이다. 애착은 크게 안정 애착과 불안정 애착으로 나눌 수 있는데, 애착대상이 일관성 있게 반응해주면 언제든지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기본적 신뢰감이 발달되어 편안함과 안정감을 느끼는 안정애착이 형성된다. 하지만 일관성 없는 반응이나 무반응을 보이면 애착 대상에 대한 강렬한 애정과 의존성, 경계심, 두려움 등의 불안정 애착을 형성한

다(Holmes, 2005; Stenger, 2008).

애착은 애착 행동을 관찰함으로써 알 수 있는데, 애착대상과의 접근성을 성취하거나 유지하기 위한 모든 형태의 행동을 말한다. 예를 들어, 신체적으로 가깝게 있기, 울음, 미소 짓기 등이 그에 해당하며(Holmes, 2005), 보통 위협과 불안정에 처했을 때 3가지 행동유형으로 나타나는데, 애착인물에 대한 근접성 추구하기, 애착인물을 안전기지(secure base)로 활용하기, 애착인물을 안식처(safe haven)로 활용하기가 그것이다(Bowlby, 1969; Walin, 2007). 최근에는 애착의 목표가 단순한 근접성 유지보다는 전반적인 안정감을 유지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신지옥, 2006). 이러한 애착 행동들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신체적 방식에서 심리적 양상으로 변화하기도 하고, 상황적 요인에 따라 강도가 달라지기도 한다(김영숙, 2002).

나. 애착유형

Ainsworth와 그의 동료들(1978)은 낯선 상황 절차(Strange Situation Procedure)를 고안하여 애착 유형을 나누었다. 낯선 상황에서 아동이 양육자와 분리 후 재결합되는 과정에서 아동이 이에 대처하는 반응을 근거로 안정 애착, 불안정 회피애착, 불안정 저항(불안정 양가적)애착으로 나누었으며, 최근 Main(1996)이 불안정 비조직 유형을 추가로 발견하였다.

첫 번째는 안정 애착유형으로 아동들은 분리 시 고통스러워하고 저항하지만, 재결합할 때는 부모를 반기며 안정을 되찾아 다시 놀이에 몰두하거나 환경을 탐색한다. 이 유형의 부모들은 아동의 신호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일관성을 가지며 아동들은 부모가 자신을 저버리지 않고 도와줄 것이라는 안정감을 유지한다. 두 번째는 불안정 회피애착 유형으로 아동들은 분리 시 겉으로는 고통스러운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재결합 시 부모를 무시하지만 놀이에 집중하지 못하고 부모를 무시한다. 이 유형의 부모들은 아동이 무엇인가를 원하거나 신호를 보낼 때 화를 내거나 원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고 꾸짖거나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며, 이때 아동들은 타인을 신뢰하지 못하고 도움이나 돌봄을 기대하지 않으며 혼자서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게 된다. 세 번째는 불안정 저항(불안정 양가적)애착으로 아동

들은 분리될 때 극도로 고통스러워하며 부모와 재회를 해도 쉽게 안정되지 않고 접촉을 요구하는 동시에 저항하는 양면성을 보인다. 이 유형의 부모들은 부모가 아동의 신호에 대해 비일관적 태도를 보일 때 형성되며, 아동들은 부모가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예측하기 힘들기 때문에 항상 분리불안을 가지며 매달리면서 한편으로는 거부와 저항을 갖는다. 네 번째는 불안정 비조직 유형으로 아동들은 부모와 재결합 시 얼어붙거나 경직되는 행동을 보이는 등 다양한 형태의 혼란스러워하는 행동을 한다(김소미, 2013).

영아기에 형성된 애착의 질은 성인이 되어서까지 영향을 미치는데, Main과 동료들(1985)이 고안한 반구조화 면접인 성인애착면접(The Adult Attachment Interview; AAI) 연구에 따르면, 낯선 상황 속에서의 아동의 애착상태와 AAI 결과 나타난 그 어머니의 애착상태 사이에는 일관된 연관관계가 나타났다. 성인 애착 면접은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되는데, 자율형은 아동기 경험에 대해 개방적이고 짜임새 있는 논리로 일관되게 묘사하며 애착을 소중히 여긴다. 반면 무시형은 짧고 불충분한 설명을 하며, 어린 시절의 기억이 거의 없다고 털어놓는다. 몰두형은 과거의 갈등과 어려움에 과도하게 휩쓸려 두서없고 산만하게 설명을 한다. 아동기의 불안정-비조직형과 같은 범주인 미해결-비조직형은 해결되지 않은 어린 시절의 외상적 사건과 관련된 주제에 대해 혼란된 상태에 있다(Holmes, 1993; 옥정, 1997).

Hazan과 Shaver(1990)는 성인애착의 과정을 이성과의 낭만적 사랑으로 규정하면서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자기보고기법을 사용하여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었다. 이들은 성인기 애착 유형을 안정형, 회피형, 불안-양가형으로 구분하였는데, 이는 Ainsworth 등(1978)이 제시하였던 유아의 세 가지 애착 유형, 즉, 안정형, 회피형, 불안-양가 유형이 성인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았다(Carver & Scheier, 2005; 이지형, 2012)

다. 내적 작동 모델

영아와 어머니와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형성되는 애착의 질은 이후 아동의 인지, 정서, 사회적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Thompson, 1998), 애착관계가

아동의 전반적인 발달에 미치는 영향력은 Bowlby의 내적작동모델의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다. 내적작동모델은 한 개인이 세상과 자신에 대해 갖는 의식적이며 무의식적인 정신적 표상으로, 이는 한 개인이 사건을 지각하고 미래를 예측하며 자신의 계획을 구성해 나가는데 도움을 준다(이춘숙, 2006). 내적작동모델의 기초는 생후 1년 동안 형성되기 시작하여 아동기, 청소년기를 거치면서 일상에서 반복되어지는 학습 경험의 결과라고 보았는데, 이러한 내적작동모델은 아동과 애착대상과의 상호작용, 아동 자신의 행동들, 그리고 이런 행동들로부터 아동들이 받는 피드백 등의 경험으로부터 구성되어진다(Bretherton, Ridgeway & Cassidy, 1990; 이춘숙, 2006). 예를 들어 아동이 양육자로부터 신체적, 정서적으로 민감하고 지지적인 상호작용을 느끼게 되면, 아동은 애착 대상에 대해 긍정적인 표상을 가질 뿐만 아니라 자신에 대해서도 능력 있고 사랑받는 존재로 실행모델을 구성하게 된다. 하지만 애착 대상으로부터 거부를 경험하거나 비일관적인 양육태도를 경험한 아동은 자신을 사랑 받을 가치가 없거나 혼란스러운 존재로 인식하는 내적작동모델을 형성하게 된다(김영숙, 2002). 이러한 내적작동모델은 한번 형성되면 변화하기 어렵고 개인의 전 생애에 걸쳐 지속적으로 유지된다(Laghi et al., 2009).

라. 청소년기 부모애착

청소년기는 아동기에서 성인기로의 과도기적 상태로 신체적, 인지적, 사회적, 심리적 변화 등 여러 가지 중요한 변화에 직면하는 시기이다(고수영, 2012). 청소년기의 애착은 유아기와 다른 몇 가지 중요한 특징을 나타낸다.

첫째, 청소년들은 부모와의 개별화 과정으로 애착의 대상을 주 양육자보다 또래를 향해 전환하며, 또래 관계는 청소년에게 정서적 지지를 제공하게 된다(Weiss, 1982; Youniss, & Smollar, 1985). 장휘숙(1997)의 연구에서도 부모에 대한 애착은 감소하고 친구에 대한 애착은 증가하는 양상을 나타내었다.

둘째, 애착의 대상이 또래로 다소 전환되어도 주 양육자인 부모는 여전히 '안정적 기지(secure base)'로 남아 있어서 위협을 느끼거나 질병으로 고통 받을 때 주 양육자에 대한 애착체계가 다시 활성화 된다(Bowlby, 1988). 왜냐하면 또

래가 안전기지로 작동하는 데는 여러 가지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김명옥, 2011). Musgove(1964)는 청소년들이 사회적 상황에서는 친구들의 도움을 더 선호하지만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부모의 도움을 찾게 된다고 하였다(김소미, 2013, 재인용)

따라서 영유아기의 애착행동과는 다르지만, 청소년기에도 여전히 부모와의 정서적인 애착관계가 그대로 지속된다고 볼 수 있겠다. 청소년기로 성장해 가면서 부모에게 갖는 안정감의 느낌은 부모의 여부에 의한 실제 영향력은 줄어들면서, 언제나 자신이 필요로 할 때 자기편이 되어 줄 수 있다는 신념으로 변화된다고 하였다(Armsden & Greenberg, 1987 ; Weiss, 1982; 김소미, 2013, 재인용).

이제까지의 연구들을 살펴보면, 애착 연구의 대부분이 어머니와의 관계에 초점을 두어 상대적으로 아버지와의 관계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다(Cabrera, Tamis-LeMonda, Bradley, Hofferth, & Lamb, 2000; 안상미, 방희정, 2013, 재인용). 하지만 최근 아버지의 역할이 20-30년 전과는 다르게 부양자 역할에서 자녀와 친밀한 유대관계를 형성하는 중요한 양육자로서의 역할로 대두되고 있으며, 사회 구조적 변화와 더불어 어머니들의 사회진출이 급증하면서 아버지의 양육참여가 필수적인 생태적 환경에 직면하게 되었다(옥정, 2012). 이에 아버지 역할에 대한 요구가 커짐에 따라 애착대상으로서의 아버지에 대한 연구도 증가하고 있다.

Ross & Fuertes(2010)연구에서 부애착과 모애착의 영향력이 서로 다른 것으로 밝혀지고 있으며, Rice, Cunningham과 Young(1997)의 연구에서도 아버지와 애착이 일반적으로 자녀의 사회적 유능성을 예측하는데 더 중요한 변수임이 밝혀졌다. Grossmann, Grossmann, Fremmer-Bombik, Kindler, Scheuerer-Englishch, & Zimmermann(2002)의 종단연구에서도 영아기 때 아버지와 활동적이고 민감한 놀이를 통해 형성된 애착표상과 청소년기의 아버지 애착표상은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음이 밝혀져 어린 시절 아버지와 애착관계가 청소년기 이후 발달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안상미, 2012, 재인용).

국내 연구에서도 부모는 자녀의 전반적인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데, 이 때 아버지와 어머니는 각각 자녀와 질적으로 다른 관계가 된다고 하였다(김영미,

2009; 이경화, 1992). 또 선행연구에서 부-자녀관계와 모-자녀관계는 청소년의 적응과 행복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자아정체감, 자아존중감, 성취동기 등에 대해 영향력을 갖는 관계의 형태가 각기 다른 것으로 보고하였다(안영옥, 2007; 공계숙, 2005; 이인아, 2003; 서정숙, 2002; 이태영, 1994).

여러 선행 연구에서 보면 부모와의 관계에서 청소년 적응에 더 많이 영향을 미치는 쪽은 아버지보다는 어머니와의 관계이며, 청소년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개인적 변인에 대해서도 어머니의 돌봄이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김영미, 2009; 이화림, 2001). 하지만 실제로 청소년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개인적 요인들에 대한 영향력이 모와의 관계보다 부와의 애정적 관계가 더 크다는 연구결과들도 보고되었다(오현미, 2011; 정인, 2000).

이처럼 어머니 애착과 더불어 아버지 애착만의 고유한 영향력이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기의 부모애착을 연구함에 있어 부애착과 모애착으로 각각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2. 감사성향

감사(gratitude)는 일시적인 정서반응을 지칭할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주어진 수혜를 잘 인식하고 축복감을 느끼며 그에 보답하려는 개인적 성향을 의미한다. 감사의 개념은 학자마다 조금씩 다르게 보고 있는데, 감사에 대한 개념을 세 가지 관점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권석만, 2011).

첫째, 긍정적인 정서로서의 감사이다. 감사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주어지는 혜택이나 평화로운 행복의 순간에 대한 반응으로 고마움과 충만한 기쁨을 의미한다. 둘째, 도덕적 정서로서의 감사이다. 감사는 고마움을 경험한 후에 자신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자 하는 친사회적 행동과 도덕적 행동을 수행하도록 동기화시켜 사회적 유대감을 증가시킨다. 셋째, 성격적 특질로서의 감사로써 감사성향으로 개념화 할 수 있다(김소미, 2013). McCullough 등(2002)은 감사성향을 긍정적인 경험과 결과들에서 타인이 베푼 선의를 알아차리고 긍정적 감정으로 반응하는 일반화된 경향성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감사성향이 높은 사람들은 다양한 경험과 범위에서 감사를 자주 경험하고 표현한다.

감사성향이 높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보다 더 자주 감사를 경험하는데, 이러한 사람들은 감사를 덜 경험하는 사람들에 비해 더 행복하고, 도움을 잘 주며, 용서를 잘 하는 성향을 보이며 덜 우울한 경향이 있다(Lopez, 2008). McCullough 등(2002)은 감사하는 성격을 측정하는 6문항으로 이루어진 감사성향 질문지(Gratitude Questionnaire-6: GQ-6)를 개발했다. 여기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긍정적 정서성과 삶에 대한 만족 수준이 높고, 낙관적이었으며, 우울과 스트레스는 더 낮았고, 유연한 대인관계 및 친사회적 행동과 정적인 관계가 있었다.

감사의 발달과정은 잘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유아기의 애착경험에 영향을 받으며 초등학교 시기에 발달하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권석만, 2011). Melanie Klein은 질투와 감사(Envy and Gratitude)라는 책을 통해 아동의 감사 발달을 설명하는 이론을 제안하였다. Klein(1957)은 감사체험이 유아기부터 나타난다고 주장하였는데, 감사의 느낌은 좋은 대상, 즉 어머니와의 관계 형성에 있어 핵심적인 것이며, 어머니의 젖가슴은 사랑과 영양섭취의 원천으로써 유아는 이러한 자원을 제공하는 어머니에 대해서 긍정적인 정서를 느끼게 된다고 하였다. 이러한 긍정정서가 감사의 바탕이 되는 것으로 추정하였다. McAdams와 Bauer(2004)도 Bowlby에 의해 개념화된 초기의 애착경험이 감사를 경험하는 바탕이 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Emmons와 Shelton(2002)은 신생아 때 감사가 저절로 생겨나지는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유아기는 감사의 발달에서 가능성 있는 발달 단계이기는 하지만 감사 경험은 인지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발달 과정에서 향상된다고 보았다(Baumgarten-Tramer, 1938; Weiner & Graham, 1988) 보통 7~10세의 아동이 되어야 긍정적인 결과가 다른 사람에 의한 것이라는 귀인을 하게 되고 그 결과 감사의 경험과 더불어 보답하려는 욕구의 연결이 확고해지는 것으로 보여진다(Graham & Weiner, 1986; Weiner & Graham, 1988; 권석만, 2011, 재인용)

3. 삶의 만족

긍정심리학이 대두된 이후 인간의 행복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면서 삶의 만족(Life Satisfaction), 행복(Happiness), 삶의 질(Quality of Life), 주관적 안녕감(Subjective well-being), 심리적 안녕감(Psychological Well-being) 등으로 혼용되어 사용되어지고 있다. 이러한 변인들의 개념과 구성을 살펴보면, 행복이란 삶에 만족하여 기분이 좋은 상태로(Layard, 2003), 크게 주관적 안녕감과 심리적 안녕감으로 나눌 수 있다. 그 중에서도 주관적 안녕감은 삶의 만족이라는 인지적 요인과 긍정, 부정 정서라는 정서적 요인으로 나눌 수 있다(Diener, 1984; Diener et al., 1995).

삶의 만족(Life Satisfaction)은 개인이 자신의 삶에 대한 만족 정도를 인지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의미하며, 자신의 삶을 잘 수행해 온 것에 대해 스스로 만족함을 의미한다(Diener & Fujita, 2005). 즉, 삶의 만족이란 개인이 자신의 삶에 대해 주관적으로 지각하고 평가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조효진 외, 2012).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에 관한 연구는 다양하지만, 이 이론들 중에서 상향이론(bottom-up)이론과 하향이론(top-down)이 대표적이다. Diener(1984)는 주관적 안녕감에 관한 이론적 접근들을 상향이론과 하향이론으로 구별하였다. 상향이론은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학적 변인(예: 성별, 수입, 결혼 상태 등)이나 생활사건 등과 같은 지표로 삶의 만족을 측정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연구가 진행됨에 따라 이러한 변인들은 삶의 만족에 대한 설명력이 높지 않았다(Campbell, Converse, & Rodgers, 1976; Andrews와 Withey, 1976). 국내의 연구에서도 인구사회학적 변인보다는 심리적 요인들이 주관적 안녕감을 더 잘 설명하였다(정계숙, 최은실, 2012; 구재선, 서은국, 2011). 때문에 하향이론 연구자들은 개인을 행복하게 하는 어떤 안정적인 내적 경향성이 존재한다는 가정 하에 삶의 만족과 관련된 심리적 특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구재선, 김의철, 2006; Near, Smoth, Rice, & Hunt, 1984; 문소연, 2013, 재인용)

4. 학교적응

청소년기의 학교적응은 청소년기에 습득해야 하는 중요한 발달과제이며, 학교에 잘 적응하는 것은 청소년기 이후 직업적 성취 및 성인기로의 성공적 전환을

예측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강유진, 문재우, 2005). 발달심리학자들은 아동 및 청소년기에 학교생활에 성공적으로 적응하는 것은 개인의 발달과정에 있어 중요한 과업 중의 하나로 강조하였다(Newman & Newman, 1984).

적응이란 개인과 환경 사이에 균형있고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해가는 과정이며, 개인의 요구, 갈등, 스트레스를 합리적으로 해결 할 수 있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박기정, 1999). 김용래(1993)는 학교적응(school-related adjustment)을 학습자가 학교상황, 즉 학교수업, 학교생활, 학교 내의 친구와의 관계, 교사와의 관계, 학교환경 전반 등에서 유발되는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일련의 노력으로서 학습자의 요구를 학교상황의 제반요구에 잘 조절하고, 학습자 자신의 요구에 대한 학교 내 실현 가능성을 신중하게 고려하고 학교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에 따라 대처하려고 하는 학습자의 성공적 혹은 비성공적인 시도라고 개념화하였다. 문은식(2002)은 학교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학업적, 사회적, 정의적 측면에서의 요구를 합리적으로 만족시키기 위해 학교환경에 순응하거나 그 환경을 변화시키고, 조작하는 청소년의 외현적, 내현적 행동으로 정의하였다.

반면 학교라는 생활영역에서 개인의 욕구가 학교 내 환경과의 관계에서 수용 또는 충족되지 못함으로써 갈등과 부적절한 행동을 보이게 되는데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 학교생활 부적응이라고 할 수 있다(이경은, 1998). 학교부적응은 학생들의 학교학습, 학교생활, 교우관계 등의 여러 차원의 문제가 학생마다 다르게 나타나기도 하고 한 학생에게 중첩적으로 나타나기도 한다(하정혜, 2011).

학교는 가정과 함께 청소년의 가치관을 형성하고 사회생활에 필요한 규범을 내면화하게 함으로써 사회화 기능을 수행하므로 청소년기의 학교생활은 매우 중요하다(김희수, 윤은중, 2004). 학교는 청소년의 적응과 관련된 문제들이 총체적으로 드러나는 곳이기 때문에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느냐의 여부는 청소년기 이후의 심리사회적 발달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김순규, 2006; 박현선, 1998).

최근 들어 과도한 학업 스트레스, 집단 따돌림, 학교폭력, 우울 및 자살과 같은 심리사회적 문제들이 크게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청소년에게 중요한 사회적 장이 되는 학교에서의 성공적 적응을 위한 구체적 방안들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지고 있다.

학교적응의 하위요인은 매우 다양하지만 학교생활에서 접하는 모든 교육적 환경을 포함하고 있다. 문은식(2002)은 학업적 적응, 사회적 적응, 정의적 적응을 하위요인으로 구분하였으며, 이규미(2005)는 학교공부, 학교친구, 학교교사, 학교생활을 하위 요인으로 구분하였고, 이미라(2007)는 교사관계, 친구관계, 학교수업, 학교규칙을 하위요인으로 구분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김용래(2000)의 학교적응에 관한 개념을 수용하여 학교환경적응, 학교교사적응, 학교수업적응, 학교친구적응, 학교활동적응을 학교적응의 하위요인으로 보았다.

5. 부·모애착, 감사성향, 삶의 만족 및 학교적응 간의 관계

가. 부·모애착과 감사성향

Melanie Kleinn(1957)은 유아기에 부모로부터 충분한 돌봄과 따뜻한 애정을 받으면 기쁨이 발달하고 이 기쁨은 다시 감사의 전조가 되어 감사를 발달시킨다고 하였다. 또 McAdams와 Bauer(2004)도 Bowlby에 의해 개념화된 안정적인 애착경험으로부터 감사가 시작된다고 하였는데, 이를 통해 자녀가 경험하는 초기 부모와의 애착은 감사의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김예진, 2012)

국내 연구에서도 애정적인 부모-자녀 관계는 감사성향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있고, 돌봄이 부족하고 거부적인 부모-자녀 관계의 경우에는 감사성향과 유의미한 부적 상관이 있었다(권석만, 하승수, 2011). 김용곤(2011)의 연구에서는 돌봄이 부족하고 거부적, 과잉간섭하는 부모-자녀관계에서도 감사성향과 부적 상관이 있다고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부모와의 애착 정도가 높을수록 감사성향이 높아질 것이라 가정할 수 있다.

나. 부·모애착과 삶의 만족

청소년기에 부모로부터의 심리적 독립 욕구가 커지고 또래관계로 대인관계가 확장되어 가지만 여전히 부모는 청소년들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기본적인 중요한 환경이다(김예진, 2012). 실제 연구에서 부모-자녀 관계가 또래관계보다 청소년의 행복감에 주는 영향력이 크며, 자녀의 중년시기의 심리적 어려움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Videon, 2005). 여러 연구자들은 부모애착과 삶의 만족에 대한 연구에서 부모와의 애착이 높을수록 삶에 대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난다는 결과를 일관성 있게 제시하였다(Shahyad et al., 2011; Wright & Perrone, 2010; Ma & Huebner, 2008; Nickerson & Nagle, 2004; Armsden, & Greenberg, 1987; 홍선덕, 2014; 문소연, 2013; 이미순, 2012; 김용환, 2011; 고영남, 2011).

이러한 부모-자녀와의 관계와 삶의 만족간의 연구를 살펴보면 청소년 시기는 여전히 부모가 청소년의 삶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문소연, 2013).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부모와의 애착 정도가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도 높아질 것이라 가정할 수 있다.

다. 부·모애착과 학교적응

부모와의 안정애착 형성은 학업성취, 학습동기, 사회적 관계, 정서적 안정, 자아존중감, 학교규칙 준수 등을 향상시켜서 청소년들로 하여금 학교생활에 성공적으로 적응하도록 돕는다(Ryan, Stiller, & Lynch, 1994 ; 강승희, 2010, 재인용). 일반적으로 청소년의 학교적응과 애착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관계를 보고하고 있지만, 학교적응에 미치는 애착의 영향력은 함께 연구된 변인들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면, 이진숙, 정혜정(2004)의 연구에서는 학교적응 전체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 연령과 아버지 애착 하위요인 중 하나인 아버지와의 의사소통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문은식, 김충희(2002)의 연구에서는 학교적응행동 관련 변인의 상대적 공헌도에 부모관계의 영향력은 크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허재경과 김유숙(2005)의 연구에서도 부모애착보다는 사회적 지지가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신현숙, 임말란(2005) 연구에서는 부모애착과 학교적응의 관계에서 부모애착이 수평적

대인관계 성향을 매개할 경우에만 학교적응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들을 통해 부모애착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은 관련 변인들에 따라 다소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청소년들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변인들을 고려하여 학교생활적응간의 관계를 파악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라. 감사성향과 삶의 만족

최근 감사연구에서는 감사하는 사람들의 특질적인 면에 초점을 두고 있다(김홍순, 2010). Emmons와 McCullough(2003)에 따르면, 감사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감사를 적게 하는 사람들에 비해 삶의 만족도, 긍정정서의 수준이 높을 뿐만 아니라, 우울, 스트레스, 불안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감사성향은 삶에 대한 만족감을 쉽게 가지게 하고 강화시킨다(Adler & Fagley, 2005). Watkins(2004)는 감사를 하는 동안 긍정적 사건 뿐만 아니라 중립적이거나 부정적인 사건에 대해서도 긍정적 의미를 발견하고 더욱 정교화한다고 주장하였으며, Watkins, Woodward, Stone 및 Kolts(2003)는 감사의 인지적 과정에 초점을 두어 감사와 안녕감 사이의 메커니즘에 대해 가능한 여러 가설들을 정리하였다. 이들은 즐거운 사건을 선물로 인식하게 되고 이를 표현하여 행복감이 증가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Diener et al., 1991; 노지혜, 2005, 재인용). 또 감사는 부정적 사건을 덜 부정적으로 인식하도록 도우며, 부정적 사건을 의미 있는 사건으로 재구조화하여 부정적 사건에 대한 긍정적 의미를 찾아내도록 촉진한다(Watkins, 2004; McAdams, 2001; Folkman 외, 2000; 노지혜, 2005).

Fredrickson(1998)은 기쁨, 흥미, 만족, 자부심, 사랑, 그리고 감사와 같은 긍정적 정서가 개인의 사고-행동 목록을 확장시키고, 신체적, 지적, 심리적, 사회적 자원을 증강시키는 기능을 한다는 확장 및 증강이론(broaden-and-build theory)을 주창하였다. 즐거운 정서를 경험하면 순간적으로 부정적인 정서들은 줄어들고(정봉교 외, 2003), 유연한 인지적 과정으로 다양한 대안을 가질 수 있

게 되어(Emmons & McCullough, 2003), 신체적인 건강과 지적인 풍부함, 그리고 심리적·사회적 자원을 증강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김홍순, 2010, 재인용)

이와 같이 감사성향은 긍정적 사건을 더욱 정교화하고 부정적인 사건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의미를 발견함으로써 긍정 정서의 수준을 높이고, 삶의 만족을 높이는 심리적 특성임을 알 수 있다.

마. 감사성향과 학교적응

감사는 부정적인 사건에서 긍정적인 의미를 발견하고 그 기억들을 정교화하여 적응적인 경험들에 대한 접근 가능성을 높인다(Watkins, 2004). 감사와 관련된 연구에서 강민형(2012)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감사프로그램이 학교적응에 유의한 영향이 있음을 보고하였다. 또한 김소미(2012)의 연구에서는 24개의 성격강점 중 사회지능, 감사, 용서 성격강점 변인이 교사관계 및 교우관계와 유의한 정적상관이 있음을 보고하여 감사성향이 학교적응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 유추해 볼 수 있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모형

본 연구는 고등학생의 부·모애착과 삶의 만족 및 학교적응간의 관계에서 감사성향의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것을 연구목적으로 삼고 있다.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다중 회귀분석이나 구조방정식 모형(SEM)을 사용하는데, 매개 변인의 신뢰도 및 측정오차와 관련된 문제 때문에 측정오차를 고려하지 않는 다중 회귀분석보다는 측정오차를 모델에 포함시키는 구조방정식 모형(SEM)이 선호된다. 또한 매개모형의 적합도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주고, 예측변인과 준거변인 뿐만 아니라 매개변인 또한 한 개 이상의 변인을 모형에 포함시킬 수 있어 다중 회귀분석에 비해 더 융통성이 있다(서영석, 2010).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구조방정식 모형을 사용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선행연구 고찰을 근거로 가설적 연구모형을 그림 III-1과 같이 설정하였다. 즉, 고등학생의 부·모애착과 감사성향은 삶의 만족 및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고, 부·모애착은 감사성향을 매개로 삶의 만족 및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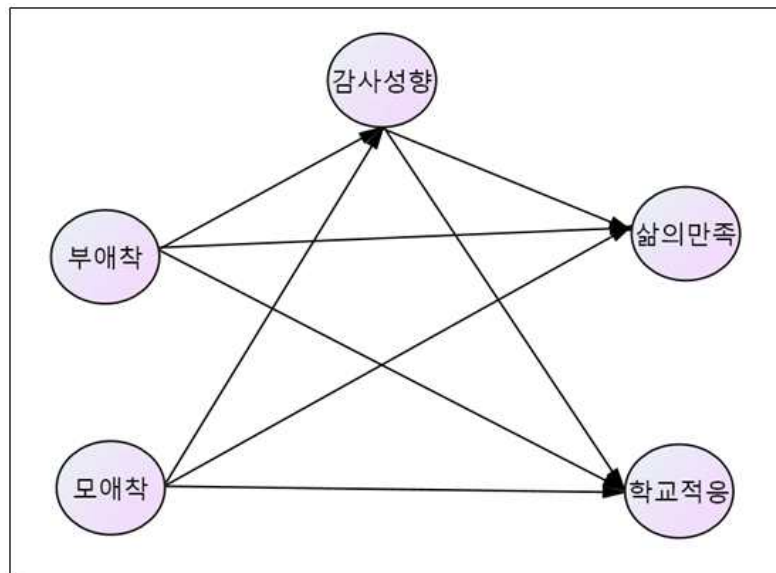


그림 III-1. 가설적 연구모형

2. 연구대상

본 연구는 제주도내 일반고 및 특성화고 고등학생 총 23,713명, 30개 고등학교(제주교육통계연보, 2013) 중 5개 학교를 유의 표집한 남녀 고등학생 548명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최초 634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고, 일부 무응답 및 불성실한 응답자 86명을 제외한 총 548명의 자료가 실제 분석 자료로 사용되었다. 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다음의 표 III-1과 같다.

표 III-1. 연구대상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n=548)

변인	문항구분	n(%)
성 별	남	265 (48.4)
	여	283 (51.6)
학 년	1학년	144 (26.3)
	2학년	220 (40.1)
	3학년	184 (33.6)

3. 연구도구

가. 부모 애착 척도

부모애착척도는 Armsden과 Greenberg(1987)의 부모 및 또래 애착척도(IPPA)를 수정한 개정본(IPPA-R)을 옥정(1998)이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부애착, 모애착 각각 25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항상 그렇다’ 5점으로 Likert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점수의 범위는 25점에서 12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와의 애착 정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척도에는 3개의 하위 요인이 포함되어 있는데 각 하위요인의 내용, 역

문항, Cronbach's Alpha는 표 III-2와 같다.

옥정(1998)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부애착이 .93, 모애착이 .92였다. 김명옥(2012)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부애착이 .94, 모애착이 .93였으며,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부애착 .948, 모애착 .935으로 나타났다.

표 III-2. 부·모 애착 척도 문항구성과 신뢰도

변인	하위 요인	문항수	문항	Cronbach's α
부애착	신뢰감	10	1,2,3*,4,5,13,17*,18*,22,24	.924
	의사소통	9	7,12,15,16,19,20,21,23*,25	.919
	소외감	6	6*,8*,9*,10*,11*,14*	.656
전체		25		.948
모애착	신뢰감	10	1,2,3*,4,5,13,17*,18*,22,24	.890
	의사소통	9	7,12,15,16,19,20,21,23*,25	.896
	소외감	6	6*,8*,9*,10*,11*,14*	.619
전체		25		.935

* 역문항

나. 한국판 감사성향 척도

감사성향을 측정하기 위하여 사용한 검사 도구로는 McCullough 등(2002)이 개발하고, 권선중 등(2006)이 번안하여 타당화한 한국판 감사성향 척도(K-GQ-6)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6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7점으로 Likert 7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점수의 범위는 6점에서 42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감사성향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문항 3번과 6번은 역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권선중, 김교현, 이홍석(2006)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85였으며,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904이다.

다. 삶의 만족 척도

삶의 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사용한 검사 도구로는 Diener 등(1985)의 삶의 만족 척도(SWLS)를 김정호(2007)가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5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7점으로 Likert 7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점수의 범위는 5점에서 3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삶의 만족 정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김정호(2007)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84였으며,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868이다.

라. 학교적응 척도

학교적응 척도는 김용래(2000)가 개발한 학교적응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모두 41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항상 그렇다' 5점으로 Likert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점수의 범위는 41점에서 20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학교적응 정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척도에는 5개의 하위 요인이 포함되어 있는데 각 하위요인의 내용, Cronbach's Alpha 는 표 III-3과 같다. 선행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84이상을 나타냈으며,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 는 .957으로 나타났다.

표 III-3. 학교적응 척도 문항구성과 신뢰도

하위 요인	문항수	문항	Cronbach's α
학교환경적응	9	7,9,10,11,12,13,14,15,16	.913
학교교사적응	9	24,25,26,27,28,29,30,31,32	.917
학교수업적응	8	33,34,35,37,38,39,40,41	.853
학교친구적응	8	5,17,18,19,20,21,22,23	.864
학교생활적응	7	1,2,3,4,6,8,36	.840
전체	41		.957

4. 연구절차

부·모애착과 삶의 만족 및 학교적응 간의 관계에서 감사성향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절차를 거쳤다.

먼저 문헌연구를 통해 부·모애착, 감사성향, 삶의 만족, 학교적응과 관련된 선행연구 논문들의 분석과 참고서적을 고찰하여 이론적 배경을 구축하였다.

다음으로 제주 지역 내 청소년기에 해당하는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유의 표집 집단을 선정한 후 표집대상 해당학교 교사를 검사협조자로 선정하고 연구자가 해당학교를 방문하여 협조자를 직접 만나서 연구의 취지를 충분히 설명하고 협조를 구하였다. 담당교사가 학급단위로 들어가 직접 질문지를 배부하고 주의사항을 전달한 후, 부·모 애착, 감사성향, 삶의 만족, 학교적응 척도 설문지를 실시하였으며, 설문지 작성 시간은 대략 15~20분이 소요되었다.

5. 자료처리 및 분석

본 연구에서는 수집된 자료는 SPSS for Windows 18.0 프로그램과 AMOS 20.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첫째, 연구대상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다.

둘째, 연구에 사용된 변인들의 일반적 특징을 알아보기 위해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으며 구조방정식 모형의 전제조건인 정상분포조건이 충족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왜도, 첨도를 산출하였다.

셋째, 각 측정도구의 신뢰도 검증을 위해 Cronbach's α 계수를 산출하였다.

넷째, 측정도구의 타당도 검증을 위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단일 요인으로 구성된 감사성향과 삶의 만족도를 문항 묶음(item parceling) 하였다.

구조방정식 모형에서(SEM)에서 사용하는 최대우도법 절차는 자료의 정규분포를 가정하는데, 모든 문항을 측정변인으로 사용할 경우, 다변량 정규분포 가정을

위반할 가능성이 높아지고(Bandalos, 2000; 서영석, 2010 재인용) 너무 많은 모수를 추정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 한편, 문항의 합 또는 평균값으로 잠재변인을 구인할 경우, 단일 수치로 잠재 변인을 왜곡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문항 묶음을 통해 자료를 분석하면 자료의 비정규성 수준이 줄어들 뿐 아니라 모형의 적합도가 향상된다(Bandalos, 2002; 서영석, 2010 재인용). 문항 묶음을 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문항들의 단일차원성이 가정될 경우에 한해서 문항 묶음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단일차원성이 가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문항 묶음을 하면 자료의 요인구조를 모호하게 할 수 있고, 편향된 모수추정치와 적합도 지수들을 산출할 수 있으며, 제2종 오류 또한 증가할 수 있다(Bandalos, 2008; 서영석, 2010, 재인용). 문항 묶음을 할 때 많이 사용하는 방법은 요인을 탐색적 요인분석에서 요인을 한 개로 지정 후 나온 요인부하량을 평균이 비슷해지도록 문항을 배분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요인부하량이 가장 높은 문항과 가장 낮은 문항을 짝을 지어 묶는다.

넷째, 관측변수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의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섯째, 본 연구에서 설정한 측정모형의 신뢰도와 타당도 검증을 위하여 확인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 CFA)을 실시하였으며, 모형 검증에서 최대우도법(Maximum Likelihood Estimation Method; ML)을 사용하였다. 이를 통해 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하고 척도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평가하였으며, 개념의 판별타당도를 평가하였다.

여섯째, 연구가설의 검증을 통해 관련 변인들 간의 이론모형을 검증하고자 구조방정식 모형(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EM) 분석을 실행하였다. 이를 통해 구조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하였으며, 유의하지 않은 경로를 삭제하여 연구구조모형을 수정하였다.

구조방정식 모형에서는 모형의 적절성을 평가하기 위한 기준으로 여러 가지 적합도 지수들을 이용하는데, 모형을 제대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두 가지의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하나는 적합도 지수가 표본 크기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적합도 지수가 자료에 잘 부합하면서 동시에 간명한 모형을 선호해야 한다는 것이다(김계수, 2008). χ^2 은 표본크기에

영향을 받아 표본크기가 클수록 영가설을 기각할 가능성이 커지므로 좋은 요인 모델도 기각될 수 있고 영가설에 내용이 너무 엄격하여 작은 전집오류에도 쉽게 기각되는 문제점이 있어(홍세희, 2000), 적합도 평가에 참고로서 반영하였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절대적 적합도 지수인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와 GFI(Goodness Fit Index)를 사용하였고, 상대적 적합도 지수인 비교 부합치(Comparative Fit Index: CFI), 비표준 부합치(Tucker-Lewis Index: TLI), 표준 부합치(Normed Fit Index: NFI)를 적합도 지수로 사용하였다. 일반적으로 이 적합도 지수들은 .90이상이면 모형의 적합도가 좋은 것으로 본다. RMSEA의 경우 .05미만이면 좋은 적합도, .80보다 작으면 양호한 적합도, .10미만이면 보통 적합도, 그리고 .10보다 크면 바람직하지 않은 적합도로 본다(송태민, 김계수, 2012). 간명 적합도 지수인 AGFI(Adjusted Goodness Fit Index)는 0.85 이상이면 모형의 적합도가 우수한 것으로 본다(신건권, 2013).

일곱째, 최종 모형에 있어 직접효과와 간접효과, 총효과 분해를 실시하였다. 이때 직접효과(Direct Effect)란 한 변인이 다른 변인에 대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말하며, 간접효과(Indirect Effect)란 한 변인이 다른 변인에 미치는 효과가 또 다른 변인에 의해 매개되는 정도를 보여주는 것이다.

여덟째, Bootstrapping을 이용하여 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앞서 살펴본 효과분해는 간접효과의 크기는 보여줄 수 있으나, 그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는 보여주지 못한다. 따라서 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Bootstrapping을 통해 검증하였다.

IV. 연구결과 및 해석

1. 주요 변인들의 기술적 통계량

분석에 사용된 변인들의 기술통계를 확인하기 위해 부·모 애착, 감사성향, 삶의 만족도, 학교적응 하위요인의 평균 및 표준편차, 왜도, 첨도를 구하였으며 결과는 표 IV-1과 같다. 이 때 단일요인으로 구성된 감사성향과 삶의 만족도는 문항 묶음(item parceling) 하였으며, 감사성향은 세 묶음, 삶의 만족도는 두 묶음 하였다.

표 IV-1. 주요 변인들의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n=548)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척도
부 애착	신뢰감	548	3.891	.820	-.827	.337	
	의사소통	548	3.161	.921	-.096	-.486	5점
	소외감	548	3.661	.684	-.671	.425	
모 애착	신뢰감	548	4.132	.625	-.919	.916	
	의사소통	548	3.550	.787	-.242	-.279	5점
	소외감	548	3.763	.589	-.507	.102	
감사성향	감사성향1	548	5.684	1.090	-.946	.709	
	감사성향2	548	5.590	1.200	-.971	.650	7점
	감사성향3	548	5.618	1.155	-.806	.058	
삶의만족도	삶의만족도1	548	3.877	1.408	.060	-.732	
	삶의만족도2	548	4.775	1.381	-.442	-.332	7점
학교적응	학교환경적응	548	3.430	.759	-.230	.171	
	학교교사적응	548	3.413	.761	-.159	.041	
	학교수업적응	548	3.216	.697	.196	.204	5점
	학교친구적응	548	3.637	.645	-.141	.108	
	학교생활적응	548	3.671	.615	.086	-.152	

표 IV-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표준편차가 3 이하, 왜도의 절대값은 3 미만, 첨도의 절대값은 8 미만으로 정규분포를 가진 것으로 나타나 구조방정식을 수행하기 위한 전제조건이 충족되었다.

2. 탐색적 요인 분석

본 연구에서 각 변인(구성개념)에 대한 요인추출은 주성분분석, 회전방법은 Varimax 방법을 이용해 탐색적 요인분석을 시행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IV-2와 같다. 모든 측정변수의 요인적재량이 0.5 이상이므로 중요한 변수들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모든 측정변수를 가지고 CFA를 실행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겠다.

표 IV-2.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와 신뢰도 분석 결과

변수		요인1	요인2	요인3	요인4	요인5	Cronbach's α
요인	측정문항						
부 애착	신뢰감			.873			.948
	의사소통			.836			
	소외감			.776			
모 애착	신뢰감				.817		.935
	의사소통				.790		
	소외감				.778		
감사 성향	감사성향1		.823				.904
	감사성향2		.843				
	감사성향3		.849				
삶의 만족도	삶의만족도1					.786	.868
	삶의만족도2					.771	
학교 적응	학교환경적응	.774					.957
	학교교사적응	.778					
	학교수업적응	.738					
	학교친구적응	.742					
	학교생활적응	.802					
설명분산(%)		46.736	12.627	8.383	6.024	5.026	
누적분산(%)		46.736	59.363	67.746	73.770	78.797	

3. 부·모 애착, 감사성향, 삶의 만족도, 학교적응의 상관관계

본 연구에서는 고등학생의 부·모 애착이 삶의 만족도와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감사성향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에 앞서, 독립, 매개, 종속 변인으로 선정된 각 변인 간의 관계를 살펴봄으로써 매개효과를 검증할 수 있는 기본 요건을 충족시키는지 알아보았다.

고등학생의 부·모 애착, 감사성향, 삶의 만족도, 학교적응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는 표 IV-3과 같다.

표 IV-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부모애착, 감사성향, 삶의 만족도, 학교적응 간에는 유의미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애착은 삶의 만족도와 정적 상관을 보이고 있으며($r_s=.297\sim.418$, $p_s<.01$), 학교적응과도 정적 상관을 보이고 있다($r_s=.121\sim.363$, $p_s<.01$). 또한 감사성향과 정적 상관을 보이고 있다($r_s=.226\sim.410$, $p_s<.01$).

모애착은 삶의 만족도와 정적 상관을 보이고 있으며($r_s=.383\sim.497$, $p_s<.01$), 학교적응과도 정적 상관을 보이고 있다($r_s=.197\sim.421$, $p_s<.01$). 또한 감사성향과 정적 상관을 보이고 있다($r_s=.330\sim.489$, $p_s<.01$).

감사성향은 삶의 만족도와 정적 상관을 보이고 있으며($r_s=.493\sim.558$, $p_s<.01$), 학교적응과도 정적 상관을 보이고 있다($r_s=.368\sim.478$, $p_s<.01$).

이상의 결과로 볼 때, 부모의 애착이 높을수록 감사성향 및 삶의 만족도, 학교적응이 높음을 알 수 있다.

표 IV-3. 부·모 애착, 감사성향, 삶의 만족도, 학교적응의 상관관계

(n=548)

	1-1	1-2	1-3	2-1	2-2	2-3	3-1	3-2	3-3	4-1	4-2	5-1	5-2	5-3	5-4	5-5
1. 부애착																
1-1. 부_신뢰감	1															
1-2. 부_의사소통	.849**	1														
1-3. 부_소외감	.647**	.564**	1													
2. 모애착																
2-1. 모_신뢰감	.564**	.519**	.367**	1												
2-2. 모_의사소통	.548**	.598**	.359**	.850**	1											
2-3. 모_소외감	.388**	.368**	.536**	.642**	.598**	1										
3. 감사성향																
3-1. 감사성향1	.410**	.341**	.226**	.489**	.433**	.345**	1									
3-2. 감사성향2	.372**	.313**	.267**	.448**	.419**	.368**	.780**	1								
3-3. 감사성향3	.390**	.328**	.255**	.429**	.395**	.330**	.794**	.796**	1							
4. 삶의 만족도																
4-1. 삶의 만족1	.348**	.378**	.316**	.485**	.497**	.419**	.494**	.493**	.491**	1						
4-2. 삶의 만족2	.418**	.391**	.297**	.462**	.451**	.383**	.558**	.521**	.526**	.734**	1					
5. 학교적응																
5-1. 환경적응	.263**	.308**	.153**	.397**	.377**	.283**	.478**	.417**	.449**	.474**	.491**	1				
5-2. 교사적응	.272**	.339**	.121**	.349**	.356**	.211**	.388**	.374**	.394**	.429**	.371**	.629**	1			
5-3. 수업적응	.327**	.363**	.172**	.384**	.407**	.197**	.390**	.368**	.374**	.422**	.381**	.556**	.577**	1		
5-4. 친구적응	.302**	.338**	.165**	.356**	.370**	.231**	.451**	.442**	.471**	.364**	.340**	.619**	.558**	.469**	1	
5-5. 생활적응	.319**	.350**	.176**	.412**	.421**	.269**	.458**	.416**	.448**	.409**	.423**	.691**	.568**	.615**	.655**	1

*p<.05, **p<.01, ***p<.001

4. 측정모형 분석

가. 측정모형의 적합도 분석

본 연구에서 사용된 측정변인들이 잠재변인들을 타당하게 측정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측정모형을 분석하는 확인적 요인분석(CFA)을 실시하였다. 측정모형 분석 결과는 그림 IV-1과 같으며, 측정모형의 적합도 결과는 표 IV-4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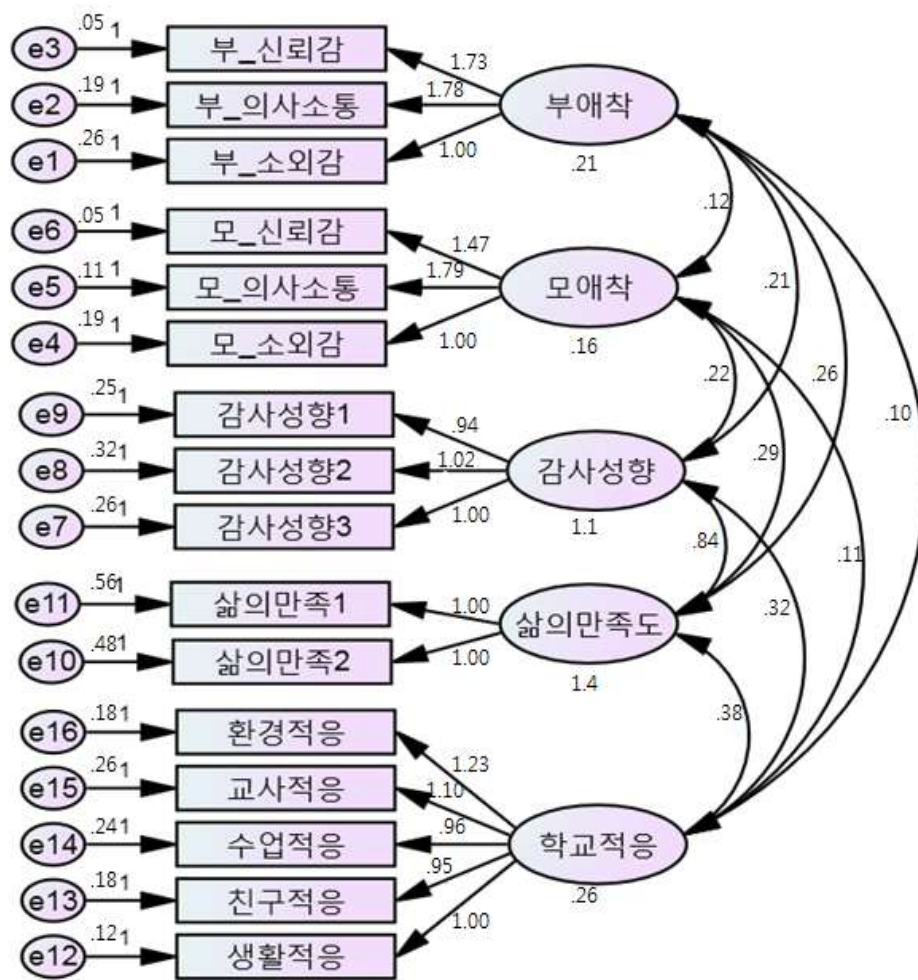


그림 IV-1. 측정모형 분석(비표준화 추정치 제시)

표 IV-4. 측정모형의 적합도 결과

$\chi^2(p)$	df	$\chi^2/DF(Q값)$	GFI	AGFI	CFI	NFI	TLI	IFI	RMSEA
453.003 (p=0.000)	94	4.819	.907	.866	.943	.929	.927	.943	.084

측정모형의 적합도 결과를 보면 $\chi^2 = 453.003$ 으로 유의하지 않게 나왔다. 하지만, χ^2 검증은 표본크기에 민감하고 영가설이 지나치게 엄격하여 쉽게 기각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적합도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χ^2 검증에만 의존하지 말고 다른 적합도 지수들도 함께 판단해야 한다(Bollen & Long, 1993; 김수빈, 2014 재인용).

이에 따라 다른 적합도 지수를 살펴본 결과 GFI=.907, AGFI=.866, CFI=.943, NFI=.929, TLI=.927, IFI=.943, RMSEA=.084로 나타나 측정모형의 적합도가 기준에 양호하게 부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 수렴타당도(개념신뢰도) 및 판별타당도

개념신뢰도와 타당도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측정모형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CFA)를 실행하여 나온 표준화회귀계수(Standardized Regression Weights), 상관관계(Correlations), 분산추정치(Variances)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

개념신뢰도(CR)는 표준화된 요인부하량(표준화 회귀계수)의 합의 제곱을 표준화된 요인부하량(표준화 회귀계수)의 합의 제곱과 오차분산의 합으로 나눈 것으로 0.7 이상이면 집중타당도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분산추출지수(AVE)는 표준화된 요인부하량의 제곱한 값들의 합을 표준화된 요인부하량의 제곱의 합과 오차분산의 합으로 나눈 것으로 0.5 이상이면 집중타당도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text{개념신뢰도(CR)} = \frac{(\sum \text{표준화회귀계수})^2}{[(\sum \text{표준화회귀계수})^2 + (\sum \text{오차분산})]}$$

$$\text{분산추출지수(AVE)} = \frac{(\sum (\text{표준화회귀계수}^2))}{[(\sum \text{표준화회귀계수}^2) + (\sum \text{오차분산})]}$$

이에 대한 결과는 표 IV-5와 같다. 표 9를 보면 개별 측정변수들의 표준화회귀계수가 0.5 이상이고 CR이 0.7 이상 그리고 AVE 값이 0.5 이상이므로 수렴타당도(개념신뢰도)가 확보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표 IV-5. 측정모형의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요인	측정 항목	표준화 계수	비표준화 계수	표준편차 (S.E)	t (C.R)	p	개념 신뢰도 (CR)	AVE
신뢰감	←	.962	1.734	.093	18.646	***		
의사소통	← 부애착	.882	1.787	.098	18.172	***	0.927	0.812
소외감	←	.665	1.000	-	-	-		
신뢰감	←	.937	1.471	.077	19.062	***		
의사소통	← 모애착	.907	1.791	.095	18.780	***	0.948	0.862
소외감	←	.676	1.000	-	-	-		
감사성향1	←	.889	.936	.032	29.604	***		
감사성향2	← 감사성향	.881	1.021	.035	29.102	***	0.895	0.740
감사성향3	←	.896	1.000	-	-	-		
삶의만족도1	← 삶의	.848	.998	.049	20.390	***		
삶의만족도2	← 만족도	.866	1.000	-	-	-	0.740	0.587
학교환경적응	←	.828	1.228	.055	22.183	***		
학교교사적응	←	.737	1.097	.058	18.987	***		
학교수업적응	← 학교적응	.707	.963	.054	17.983	***	0.938	0.752
학교친구적응	←	.751	.946	.049	19.447	***		
학교생활적응	←	.833	1.000	-	-	-		

***p<.001

또한 개념의 판별타당도는 두 잠재변수 간에 구한 AVE가 각 잠재변수의 상관계수의 제곱, 즉 결정계수(r^2)보다 크면 두 잠재변수 간에는 판별타당도가 확보되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반대로 결정계수가 AVE보다 큰 경우가 있으면 부분적인 판별타당도를 확보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에 대한 결과는 표 IV-6과 같다.

표 IV-6. 구성개념 간의 판별타당도 분석결과

구 분	부애착	모애착	감사성향	삶의만족도	학교적응
부애착	0.812				
모애착	.634	0.862			
감사성향	.447	.537	0.740		
삶의만족도	.479	.602	.676	0.587	
학교적응	.407	.528	.613	.620	0.752

주: 대각선 진한 부분은 AVE값임.

표 IV-6에서 잠재변수 간 상관계수 중에서 가장 큰 것은 0.676(감사성향과 삶의 만족도 간)이다. 상관계수의 제곱, 즉 결정계수는 0.457(0.676*0.676)이다. 각 잠재변수 간에 구한 AVE값이 각 잠재변수의 결정계수보다 크다면 판별타당도를 확보했다고 판단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각 잠재변수 간에 구한 AVE값이 결정계수 0.457보다 크므로 판별타당도를 확보했다고 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주요 변수들의 수렴타당도와 판별타당도 및 개념 신뢰도가 확보 되었으므로 이를 토대로 구조모형을 설정하였다.

5. 구조모형 분석

측정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주요변수들 간의 구조적 관계를 살펴 보기 위해 연구모형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모형에 대한 분석결과, 연구모형에 대한 분석결과, 연구모형의 적합도 $\chi^2=474.918(df=95)$, $p=.000$, CFI=.940, TLI=.924, RMSEA=.086로 나타나 본 구조모형의 적합도는 전반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부애착이 삶의 만족도와 학교적응으로의 경로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해당 경로를 제거한 수정모형을 설정한 후 연구모형과의 카이제곱 통계량의 차이를 비교 분석하였다.

연구모형 분석결과는 그림 IV-2 및 표 IV-7과 같고 수정모형 분석결과는 그림 IV-3 및 표 IV-8과 같으며, 두 모형의 χ^2 차이 및 모형의 적합도 지수를 비교한 결과는 표 IV-9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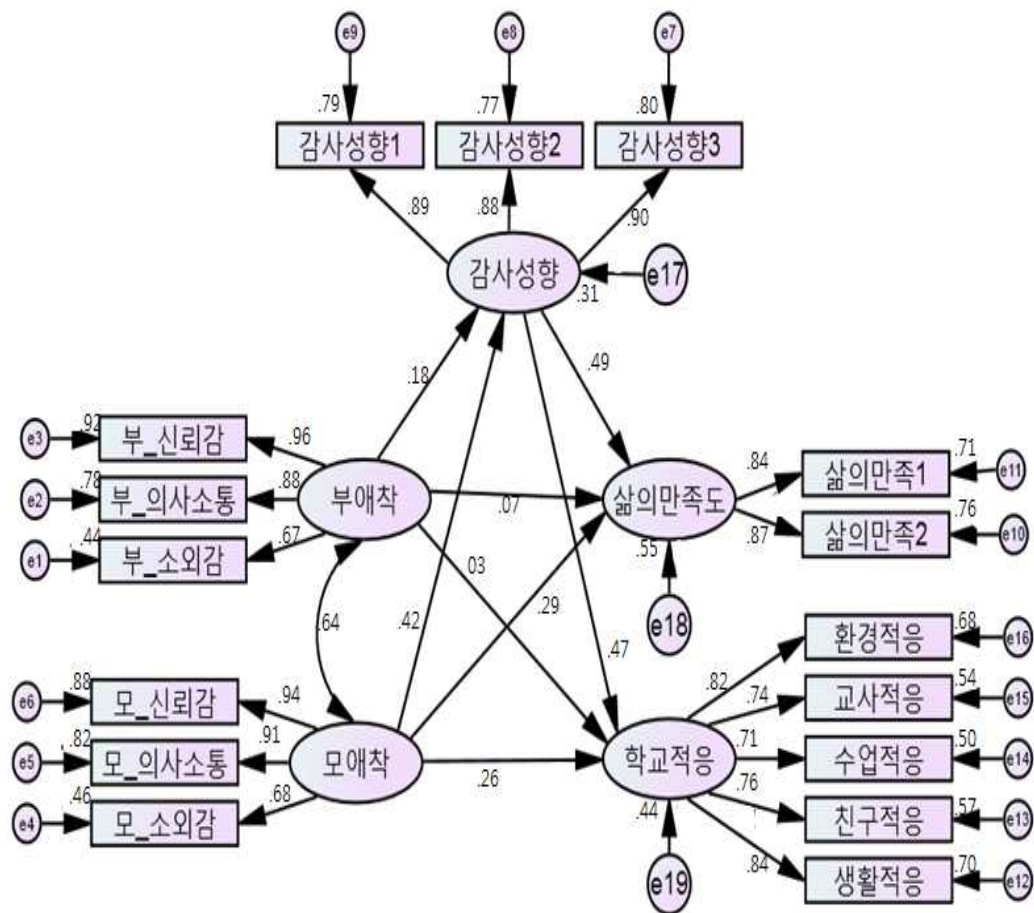


그림 IV-2. 연구모형의 분석결과(표준화추정치 제시)

표 IV-7. 연구모형의 분석결과

경로	표준화 계수	비표준화 계수	표준 편차 (S.E)	t (C.R)	p	채택 여부	R ² (다중 상관계수)
부애착 → 감사성향	.179	.406	.123	3.304	***	채택	.307
부애착 → 삶의만족	.074	.195	.130	1.505	.132	기각	.551
부애착 → 학교적응	.034	.039	.057	.679	.497	기각	.444
모애착 → 감사성향	.423	1.098	.150	7.314	***	채택	.307
모애착 → 삶의만족	.293	.884	.166	5.320	***	채택	.551
모애착 → 학교적응	.260	.335	.073	4.594	***	채택	.444
감사성향 → 삶의만족	.494	.575	.055	10.517	***	채택	.551
감사성향 → 학교적응	.468	.232	.024	9.581	***	채택	.444

주: *** p<0.01, ** p<0.1, * p<0.5 수준에서 유의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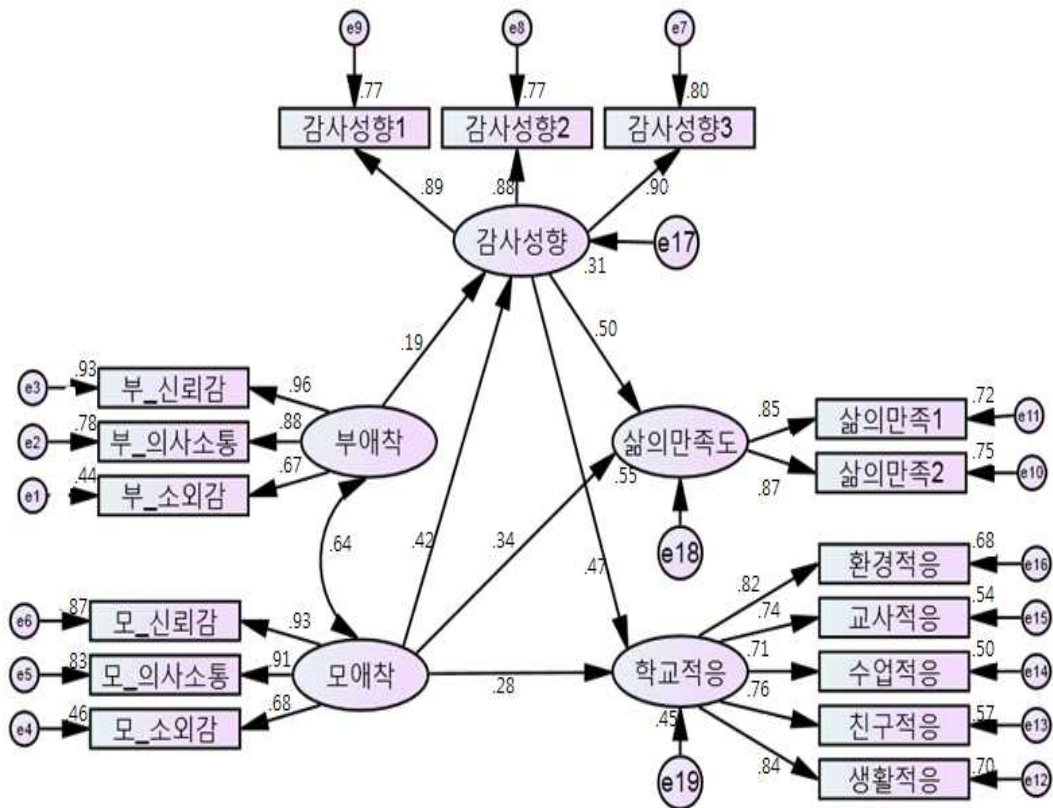


그림 IV-3. 수정모형의 분석결과(표준화추정치 제시)

표 IV-8. 수정모형의 분석결과

경로	표준화 계수	비표준 화계수	표준 편차 (S.E)	t (C.R)	p	채택 여부	R ² (다중 상관치)
부애착 → 감사성향	.185	.420	.123	3.422	***	채택	.308
모애착 → 감사성향	.419	1.088	.150	7.260	***	채택	.308
모애착 → 삶의만족	.340	1.021	.143	7.146	***	채택	.551
모애착 → 학교적응	.282	.363	.062	5.861	***	채택	.445
감사성향 → 삶의만족	.503	.582	.054	10.738	***	채택	.551
감사성향 → 학교적응	.472	.234	.024	9.756	***	채택	.445

주: *** p<0.01, ** p<0.1, * p<0.5 수준에서 유의함.

표 IV-9. 연구모형과 수정모형 간 적합도 분석

모형	χ^2	df	χ^2/DF (Q)	$\Delta\chi^2$ (Δdf)	CFI	TLI	RMSEA
모형1 (연구모형)	474.918	95	4.999		.940	.924	.086
모형2 (수정모형)	477.331	97	4.921	2.413 (2)	.939	.925	.085

표 IV-9를 보면 수정모형의 적합도는 $\chi^2=477.331(df=97)$, $p=.000$, CFI=.939, TLI=.925, RMSEA=.085로 두 모형의 적합도는 수정모형이 더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두 모형 중 간명한 모형인 수정모형이 최종 모형으로 채택되었다.

표 IV-8과 같이 최종모형에서 추정된 각 변수간의 경로계수추정치를 분석한

결과이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수관계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부애착과 모애착이 고등학생의 감사성향에 미치는 영향력은 유의수준 .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모의 애착이 높을수록 고등학생의 감사성향이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둘째, 감사성향이 고등학생의 삶의 만족도와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력 역시 유의수준 .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성향이 높을수록 고등학생의 삶의 만족도와 학교적응이 높다는 것을 입증한 결과이다.

셋째, 모애착이 고등학생의 삶의 만족도와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력 또한 유의수준 .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애착이 높을수록 고등학생의 삶의 만족도가 높으며, 학교적응을 잘 한다는 것을 입증한 결과이다.

넷째, 부애착은 고등학생의 삶의 만족도와 학교적응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으나, 감사성향을 통해 고등학생의 삶의 만족도와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섯째, 모애착은 고등학생의 삶의 만족도와 학교적응에 직접적인 영향과 감사성향을 매개로 하는 간접효과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상의 결과를 요약해 볼 때, 감사성향은 부애착과 고등학생의 삶의 만족도 및 학교적응의 관계를 완전 매개함을 확인 할 수 있으며, 모애착과 고등학생의 삶의 만족도 및 학교적응의 관계는 부분 매개함을 확인 할 수 있다.

6. 최종모형에 대한 매개효과의 유의도 검증

구조모형 분석을 통해 경로계수의 추정치를 파악한 후,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와 학교적응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경로에 있어 변수 간의 총 효과, 직접효과, 간접효과를 살펴보면 표 IV-10과 같다.

표 IV-10. 최종모형에 대한 효과분해 결과(표준화계수)

(n=548)

경로	직접 효과	간접 효과	전체 효과	Bootstrapping 95% 신뢰구간		
				하한	상한	p
부애착 → 감사성향	.185	-	.185			
부애착 → 삶의 만족	-	.093	.093	.038	.156	.002**
부애착 → 학교적응	-	.087	.087	.037	.147	.001***
모애착 → 감사성향	.419	-	.419			
모애착 → 삶의 만족	.340	.211	.550	.144	.285	.002**
모애착 → 학교적응	.282	.198	.480	.134	.268	.002**
감사성향 → 삶의 만족	.503	-	.503			
감사성향 → 학교적응	.472	-	.472			

주: *** p<0.01, ** p<0.1, * p<0.5

표 IV-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부애착에서 감사성향을 통해 삶의 만족도로 영향을 주는 간접 효과는 .093로 나타났으며 Bootstrapping을 실시한 결과 감사성향의 매개효과는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beta=.093$, $p<.01$, $BC=.038\sim.156$). 또한 부애착에서 감사성향을 통해 학교적응으로 영향을 주는 간접 효과는 .087으로 나타났으며 Bootstrapping을 실시한 결과 이 역시 감사성향의 매개효과는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beta=.087$, $p<.001$, $BC=.037\sim.147$).

모애착에서 감사성향을 통해 삶의 만족도로 영향을 주는 간접효과는 .211로 나타났으며 Bootstrapping을 실시한 결과 감사성향의 매개효과는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beta=.211$, $p<.01$, $BC=.144\sim.285$). 또한 모애착에서 감사성향을 통해 학교적응으로 영향을 주는 간접효과는 .198으로 나타났으며 Bootstrapping을 실시한 결과 감사성향의 매개효과는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beta=.198$, $p<.01$, $BC=.134\sim.268$).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부·모애착과 삶의 만족 및 학교적응간의 관계가 감사성향에 의하여 매개되는지를 검증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연구문제를 중심으로 연구과정에서 밝혀진 결과를 바탕으로 선행연구와 비교하여 논의하고 결론을 내리면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부·모애착, 감사성향, 삶의 만족, 학교적응 간에는 어떠한 관련이 있는가?

부·모애착, 감사성향, 삶의 만족, 학교적응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부·모애착과 삶의 만족 간의 상관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부·모애착과 삶의 만족은 유의한 정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모에 대한 애착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 높다는 선행 연구(홍선덕, 2014; 문소연, 2013; 이미순, 2012; 고영남, 2011; 김용환, 2011)들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이것을 부모 애착의 하위요인과 연결하여 살펴보면, 부모와 신뢰감이 잘 형성되어 있고 의사소통이 원활하며 친밀하다고 느낄수록 삶의 만족도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부·모애착과 학교적응은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모에 대한 애착이 높을수록 학교적응 수준도 높다는 선행연구(이미순, 2012; 채영이, 2006; 유복귀희, 2003)들의 결과를 지지한다. 즉, 부모와의 애착이 잘 형성되어 있을수록 학교적응도 잘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것을 부모 애착의 하위요인 및 학교적응의 하위요인과 연결하여 살펴보면, 부모와의 신뢰감이 잘 형성되어 있고 의사소통이 원활하며 친밀하다고 느낄수록 학교환경에 잘 적응하고, 학교친구나 교사와의 관계가 좋으며, 수업 및 학교생활에 잘 적응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또한, 부·모애착과 감사성향 간에도 유의한 정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애정적인 부모-자녀 관계가 자녀의 감사성향에 영향을 미친다는 김예진

(2012)의 연구와 맥을 같이 한다. 즉, 부모와의 신뢰감이 잘 형성되어 있고 의사소통이 원활하며 친밀하다고 느낄수록 감사함을 느끼는 경향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감사성향과 삶의 만족 간에도 유의한 정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감사성향이 높을수록 주관적 안녕감도 증가한다는 박소정(2009)의 연구와 맥을 같이 하며, 감사함을 자주 느끼는 사람일수록 자신의 삶에 더 만족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감사성향과 학교적응 간에도 유의한 정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감사성향이 높을수록 학교적응이 높다는 임경희(2010)의 연구와 일치한다. 이것을 학교적응의 하위요인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감사함을 자주 느끼는 사람일수록 학교환경에 잘 적응하고, 학교친구나 교사와의 관계가 좋으며, 수업 및 학교생활에 잘 적응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연구문제 2. 부애착과 삶의 만족 및 학교적응 사이의 관계를 감사성향이 매개하는가?

부애착과 삶의 만족, 부애착과 학교적응 사이의 관계에서 감사성향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측정모형 검증과 구조모형 검증을 통해 그 효과의 유의성을 살펴보았다. 우선 부애착과 삶의 만족 간의 관계에서 감사성향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 감사성향은 부애착과 삶의 만족간의 관계를 완전 매개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애정적인 부-자녀관계와 중학생의 행복감 관계에서 감사성향이 부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난 김예진(2012)의 연구와 관련이 깊으며, 부애착과 대학생의 삶의 만족과의 관계에서 감사성향이 부분 매개한 것으로 나타난 김양운(2013)의 연구와도 관련이 깊다. 하지만 김예진(2012)의 연구와 김양운(2013)의 연구에서는 감사성향이 부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에 비해, 본 연구에서는 완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 상이하다.

본 연구결과의 의미를 자세히 살펴보면 부애착이 삶의 만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다고보다는 감사성향을 통해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아버지와 애착이 잘 형성되어 있을수록 감사성향이 높아지게 되고, 감사함을 자주 느끼게 됨에 따라 자신의 삶에 더욱 만족하게 된다고 해석할 수 있겠다.

본 연구에서 부애착이 고등학생의 삶의 만족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은 유의미하지 않고 감사성향을 통하여 삶의 만족에 간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점은 그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의도적 조작이 어렵고 비교적 안정적인 특성을 지닌 부애착보다는 학습이 가능하고 의도적인 개입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감사성향의 직접적인 영향력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아버지와의 안정된 애착은 감사성향을 향상시키고, 이렇게 아버지와의 안정된 애착으로부터 영향을 받아 높게 형성된 감사성향은 고등학생의 삶의 만족을 높일 수 있다. 그리고 아버지와의 애착이 잘 형성되지 못했을 경우라도 의도적인 개입이 가능한 감사성향을 증진함으로써 삶의 만족을 높일 수 있다.

다음으로 부애착과 학교적응 간의 관계에서 감사성향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 감사성향은 부애착과 학교적응 간의 관계를 완전 매개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중학생의 부모애착이 교사관계 및 교우관계에 미치는 영향에서 감사성향이 부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난 김소미(2013)의 연구 결과와 맥을 같이한다고 볼 수 있다. 다만 김소미(2013)의 연구에서는 감사성향이 부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에 비해, 본 연구에서는 완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 상이하다.

본 연구결과의 의미를 자세히 살펴보면 부애착이 학교적응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다고보다는 감사성향을 통해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아버지와의 애착이 잘 형성되어 있을수록 감사성향이 높아지게 되고, 이것이 학교적응을 잘 할 수 있도록 돕는다고 해석할 수 있겠다.

본 연구에서 부애착이 고등학생의 학교적응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은 유의미하지 않고 감사성향을 통하여 학교적응에 간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점은 의도적 조작이 어렵고 비교적 안정적인 특성을 지닌 부애착보다는 학습이 가능하고 의도적인 개입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감사성향의 직접적인 영향력에 주목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버지와의 안정된 애착은 감사성향을 향상시키고, 이렇게 아버지와의 안정된 애착으로부터 영향을 받아 높게 형성된 감사성향은 고등학생의 학교적응을 높일 수 있다. 그러나 아버지와의 애착이 잘 형성되지 못했을 경우에도 의도적인 개입이 가능한 감사성향을 증진시킴으로써 학교적응을 높일 수 있다.

연구문제 3. 모애착과 삶의 만족 및 학교적응 사이의 관계를 감사성향이 매개하는가?

모애착과 삶의 만족, 모애착과 학교적응 사이의 관계에서 감사성향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측정모형 검증과 구조모형 검증을 통해 그 효과의 유의성을 살펴보았다. 우선 모애착과 삶의 만족 간의 관계에서 감사성향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 감사성향은 모애착과 삶의 만족간의 관계를 부분 매개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애정적인 모-자녀관계와 중학생의 행복감 관계에서 감사성향이 완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난 김예진(2012)의 연구와 관련이 깊으며, 모애착과 대학생의 삶의 만족과의 관계에서 감사성향이 완전 매개한 것으로 나타난 김양운(2013)의 연구와도 관련이 깊다. 하지만 김예진(2012)의 연구와 김양운(2013)의 연구에서는 감사성향이 완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에 비해, 본 연구에서는 부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 상이하다.

본 연구결과의 의미를 자세히 살펴보면 모애착은 삶의 만족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감사성향을 통해 간접적인 영향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어머니와의 애착이 잘 형성되어 있을수록 자신의 삶에 만족하기도 하지만, 어머니와의 애착이 잘 형성되어 있을수록 감사성향이 높아지게 되고, 감사함을 자주 느끼게 됨에 따라 자신의 삶에 더욱 만족하게 된다고 해석할 수 있겠다. 따라서 삶의 만족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머니와의 애착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함과 동시에, 감사성향을 증진시키기 위한 상담 및 교육적 개입 필요하겠다.

다음으로 모애착과 학교적응 간의 관계에서 감사성향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 감사성향은 모애착과 학교적응 간의 관계를 부분 매개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조운경(2011)의 연구에서 모애착이 아동의 낙관성을 매개로 하여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와 맥락을 같이 한다. 또한 중학생의 부모애착이 교사관계 및 교우관계에 미치는 영향에서 감사성향이 부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난 김소미(2013)의 연구 결과와 맥을 같이한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결과의 의미를 자세히 살펴보면 모애착이 학교적응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감사성향을 통해 간접적인 영향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어머니와의 애착이 잘 형성되어 있을수록 학교적응을 잘 하기도 하지만, 어머니와의 애착이 잘 형성되어 있을수록 감사성향이 높아지게 되고, 이것이 학교

적응을 더 잘 할 수 있도록 돕는다고 해석할 수 있겠다.

따라서 학교적응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머니와의 애착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함과 동시에, 감사성향을 증진시키기 위한 상담 및 교육적 개입이 필요하겠다.

본 연구의 결과들이 갖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선행연구들이 부모애착과 삶의 만족, 부모애착과 학교적응 사이의 단순관계를 살펴본 것과 다르게 감사성향을 매개변인으로 포함하여 구조적 관계를 살폈다는 점에서 이전 연구들을 확장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고등학생의 부모애착과 삶의 만족 및 학교적응 간에 감사성향이 매개적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세밀하게 분석하고, 매개효과가 있다는 것을 검증하였다. 부모애착을 높이기 위해서는 부모가 있어야 하고 관계 경험이 있어야겠지만, 학교현장이나 상담 현장에 부모가 함께 참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이는 상담자가 활용할 수 있는 자원 이상의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반면 감사성향을 높이는 것은 내담자 개인의 내면을 변화시키는 일이므로 상담자가 지닌 가용 자원내에서 충분히 가능한 것이다. 즉, 부모와의 애착에 초점을 두기 보다는 감사성향에 초점을 두고 개입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더 적절함을 의미한다.

둘째, 기존의 감사에 관한 연구들은 감사성향과 삶의 만족 및 학교적응 사이의 관계를 주로 살폈지만 본 연구는 애착이 감사성향의 근원 작용을 할 수 있는지를 살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셋째, 애착, 감사성향, 삶의 만족 및 학교적응간의 관계에서 부모애착은 삶의 만족 및 학교적응으로 가는 직접적 경로가 유의하지 않았지만 모애착은 삶의 만족 및 학교적응으로 가는 직접적 경로가 유의하였다. 즉, 부모애착과 모애착을 구분하여 연구함으로써 부모애착과 모애착이 삶의 만족 및 학교적응에 이르는 경로가 다를 수 있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상을 종합하여 볼 때 고등학생의 삶의 만족을 높이고 학교적응을 도와주기 위한 상담 및 교육적 개입시 단기간에 변화시키기 어려운 부모애착의 안정성 대신 감사성향에 대한 개입을 하면 삶에 더 만족하고 학교적응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청소년기 중에서도 고등학교 일반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였고, 제주지역에 한정하였으므로, 본 연구의 결과를 전국 전체 고등학생으로 일반화하기 위해서는 다른 지역에서의 연구를 추가로 실행한 후 그 결과와의 비교분석이 필요하겠다. 또한 부모애착은 인간의 발달단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성별, 지역별, 학교급별, 가정적·사회적 배경을 가진 학생들을 대상으로 일반화될 수 있는지, 발달단계별 특성은 어떻게 나타나는지 지속적으로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부모애착과 삶의 만족 및 학교적응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져 또래애착이 삶의 만족 및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알 수 없었다. 또래애착도 함께 연구되어 부모애착과 또래애착에 대한 비교를 통해 고등학생의 삶의 만족 및 학교적응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통합적으로 탐색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본 연구의 구조방정식 분석은 단일모형 평가방법에 의해 최종 모형이 선택되었기 때문에, 연구자가 고려하지 못했지만 적합도가 훨씬 좋고 이론적인 정당화가 가능한 더 나은 대안 모형이 존재할 가능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을 수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모든 가능한 경로를 고려하여 여러 모형을 제시한 후, 모형들을 비교한 다음 적합도가 가장 좋은 모형을 최종모형으로 선택하는 경쟁모형평가 방법을 사용한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참 고 문 헌

- 강민형(2012). **감사프로그램이 초등학생의 낙관성 및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서울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강승희(2010). 중학생의 부·모 애착, 우울, 심리적 안녕감, 학교생활적응간의 관계. **중등교육연구**, 58(3), 1-29.
- 강유진, 문재우(2005). 청소년 학교적응에 대한 가족요인의 영향: 가족배경요인과 가족관계 요인의 상대적 영향력. **한국청소년연구**, 16(1), 283-316.
- 강주리(2010). **부모의 양육행동 및 남녀 청소년의 정서지능이 용서수준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강진경(2001). **아동기의 부모에 대한 내적 표상과 성인기의 낭만적 애착**.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고영남(2011). 대학생의 성별에 따른 부모애착, 동료애착 및 주관적 안녕감의 관계. **한국교육학연구**, 17(1), 246-269.
- 고혜영(2012). **자아존중감과 또래애착을 매개로 한 부모양육태도와 중학생의 삶의 만족도**.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공계숙(2005). **중학생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아정체감과의 관계**. 서울여자대학교 기독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교육통계서비스(2013). **2013 교육통계연보**. 서울 :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 구재선, 서은국(2011). 한국인, 누가 언제 행복한가?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5(2), 143-166.
- 권석만(2008). **긍정심리학: 행복의 과학적 탐구**. 서울: 학지사.
- 권석만(2011). **인간의 긍정적 성품: 긍정심리학의 관점**. 서울: 학지사.
- 권석만, 하승수(2011). 기질과 지각된 부모 양육태도가 성격강점에 미치는 영향: 지각된 부모 양육태도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30(1), 263-284.
- 권선중, 김교현, 이홍석(2006). 한국판 감사성향 척도(K-GQ-6)의 신뢰도 및 타당도,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1(1), 177-190.

- 김계수(2008). 구조방정식모형 분석. 서울: 한나래아카데미.
- 김귀숙, 정영옥, 이나혜(2003). 아동의 애착과 자기효능감 및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 동서정신과학, 6(2), 259-279.
- 김낭영(2009). 부모애착과 청소년의 걱정과의 관계에서 낙관성의 매개효과 검증. 인천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명옥(2012). 청소년의 부모애착과 학교적응간의 관계에 미치는 학업 및 사회적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단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명진(2009). 아동의 모애착과 감정통제능력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민수(2013).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학교생활적응의 관계에서 또래애착의 매개효과.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소미(2013). 중학생의 부모애착이 교사관계 및 교우관계에 미치는 영향 : 성격 강점(사회지능, 감사, 용서)의 매개효과.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수빈(2014). 아동의 모애착과 부적응 행동간의 관계 : 자아존중감과 또래관계 질의 매개효과. 전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수선(2013). 아동의 부모애착과 자기통제력이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제주대학교 사회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순규(2006). 빈곤 청소년의 학교적응유연성 발달모형: 보호요인의 부가, 매개, 조절효과 모형을 중심으로. 전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승엽(2013). 청소년의 부모애착과 학교생활적응의 관계에서 정서지능의 매개효과. 숙명여자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신영, 백혜정(2008). 한국청소년행복지수 개발연구. 한국사회학 42(6), 140-173.
- 김양운(2013). 대학생의 부모애착과 삶의 만족 간의 관계에 미치는 감사의 매개효과. 단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영미(2009). 성별에 따라 대인관계 질에 미치는 부, 모의 양육태도와 애착 비교 연구. 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영민, 임영식(2013).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과잉적 양육, 자

- 아탄력성, 학교적응의 구조적 관계분석. **청소년복지연구**, 15(2), 343-366.
- 김영숙(2002). **청소년의 애착유형, 자아존중감, 학업성취의 관계**.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예진(2012). **중학생의 부모-자녀관계와 행복감의 관계에서 감사성향의 매개효과**.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용곤(2011). **부모의 역기능 양육태도와 학업 성취도 간 관계에서 성격강점의 중재효과**.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용래(1993). 정의적 특성과 그 선행변인이 학업성적에 미치는 영향. **홍익대학교 교육연구소, 교육연구논총**, 9, 5-113.
- 김용래(2000). 학교학습동기 척도(A)와 학교적응 척도(B)의 타당화 및 두 척도 변인간의 관계 분석, **홍익대학교 교육연구소, 교육연구 논총**, 17, 3-37.
- 김용환(2011). **대학생이 지각한 부모-자녀 애착과 자기통제력, 주관적 삶 만족의 관계**. 건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정호(2007). 삶의 만족 및 삶의 기대와 스트레스 및 웰빙의 관계-동기상태 이론의 적용,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2(2), 325-345.
- 김홍순(2011). **청소년행복에 관한 감사조절모형의 연구**. 경기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희수, 윤은종(2004). 청소년이 지각한 교사의 행동과 애착안정성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청소년연구**, 15(2), 93-115
- 노영천, 김홍석(2012).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의 부모애착이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낙관성의 매개효과. **상담학연구**, 13(6), 2625-2640.
- 노지혜(2005). **나는 왜 감사해야 하는가? : 스트레스 상황에서 감사가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아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노혜숙(2008). **고등학생의 감사성향과 심리적 안녕감의 관계: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문소연(2013). **청소년의 부모애착과 삶의 만족 사이의 관계에서 무조건적 자기 수용의 매개효과**. 광주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문은식(2002).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행동에 관련되는 사회 심리적 변인들의 구조적 분석**. 충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기정(1999). **학교태도와 학교적응 및 학업성적간의 관계**. 홍익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소정(2009). **청소년의 낙관성 및 감사성향과 주관적 안녕감의 관계**.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민경(2014). **초등학생이 지각한 부모 애착이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 또래 애착과 낙관성의 매개효과**.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현선(1998). **빈곤청소년의 학교적응유연성**.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변지희(2013). **초등학생의 부모애착과 학교적응의 관계에서 스트레스 대처방안의 매개효과**.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서정숙(2002). **청소년이 지각한 부와 모의 양육태도가 자아개념과 숨은 비행에 미치는 영향**. 대구카톨릭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서영석(2010). **상담심리 연구에서 매개효과와 조절효과 검증: 개념적 구분 및 자료 분석 시 고려 사항**.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2(4), 1147-1168.
- 성선진(2010). **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 관련요인의 인과적 관계 분석**. 충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손태주(2011). **청소년의 애착과 학교생활적응 관계에서 도움추구행동의 경로모형**. 제주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송태민, 김계수(2012). **보건복지연구를 위한 구조방정식 모형 : Amos 초급에서 고급까지**. 서울: 한나래아카데미
- 신건권(2013). **Amos 20 통계분석 따라하기 : 석박사학위 및 학술논문 작성 중심의**. 서울: 청람.
- 신지옥(2006). **애착, 정서, 그리고 대인관계 유능성 사이의 관계에 대한 경로분석**.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신현숙(2011). **초등학생의 성격적 강점 및 주관적 행복감과 학교생활적응간의 관계**.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신현숙, 임말란(2005). **청소년의 부모애착과 학교적응의 관계에서 수평적 대인관계 성향의 매개효과**. **청소년연구**, 12(1), 103-126.
- 안영옥(2007). **여중생이 지각하는 부모와의 애착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안지영, 오미경, 김지신(2011). 애착이 아동의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 자아탄력성과 친구지지의 매개 역할. **아동학회지**, 32(6), 63-79.
- 여성가족부(2012). 2012 청소년백서(11-1383000-000102-10). 서울: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과.
- 염유식, 김경미, 이미란, 박현수, 이진아(2013). 2013년도 한국 어린이-청소년 행복지수 국제비교연구 조사결과보고서. 서울: 한국방정환재단. 연세대학교 사회발전 연구소.
- 오미경, 안지영, 김지신(2011). 어머니에 대한 애착이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 아동의 자아탄력성과 스트레스의 매개적 역할. **아동교육**, 20(3), 165-180.
- 오현미(2011). 부모의 양육방식과 청소년의 행복감과의 관계: 자기자비의 역할. 경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오혜진(2007). 부모애착, 친구애착, 희망과 청소년 비행 간의 관계. 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옥정(1998). 청소년기 애착 안정성과 우울성향의 관계: 지각된 유능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옥정(2012). 아버지 애착표상, 아버지 탐색민감성, 유아 애착안정성 및 유아 발달간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유병선, 이지연, 이채희(2008). 초등학생의 부모애착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 공격성과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 검증. **청소년시설환경**, 6(3), 3-14.
- 유복귀희(2003). 아동의 애착과 자아존중감 및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 한서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경미(2013). 모애착이 아동의 정서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 정서지능과 친사회적 행동의 매개효과. 서강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경은(1998). 학교생활부적응 유형과 요인에 따른 학교사회사업 서비스 욕구에 관한 연구. 대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경화(1992). 딸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 및 딸의 성취동기에 관한 연구. 이

- 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미순(2012). **청소년의 부모애착, 자아요인, 정신·심리적 요인, 학교생활적응과 삶의 만족도간의 관련성**. 한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순성(2010). **청소년 삶의 만족도와 관련 변인의 종단적 추이 분석**. 강원대학교 대학원 교육심리전공 박사학위 논문.
- 이예은(2013). **성별에 따른 부모양육태도가 중학생의 학교생활적응과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인아(2003). **부모의 양육태도 및 자아개념이 진로의식 발달에 미치는 영향**.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지선(2009). **부모-자녀갈등과 공감이 용서 및 심리적 부적응에 미치는 영향**.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지형(2012). **성인 애착 유형에 따른 향유 신념과 중독성향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춘숙(2006). **청소년의 부모와 친구에 대한 애착과 자아존중감 및 우울과의 관계**. 원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태영(1994).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녀의 자아정체감과의 관계: 중고등학생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화림(2001). **부모 양육태도와 중고등학생의 자아정체감과의 관계**. 서강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임경희(2010). **아동의 스트레스와 자아탄력성이 학교적응과 생활만족에 미치는 영향**. *초등상담연구*, 9(2), 217-233.
- 임경희(2010). **아동의 스트레스 경험과 감사성향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초등교육연구*, 23(3), 215-238
- 임수진, 안진홍(2012). **아동의 어머니 애착과 학교적응에서 정서조절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9(2), 331-345
- 장휘숙(1997). **청년기의 애착과 자아존중감 및 자기효능감의 관계**. *인간발달연구*, 4(1), 88-106.
- 정계숙, 최은실(2012). **사회 인구학적, 심리적, 관계적 요인이 영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열린유아교육연구*, 17(5), 143-163.

- 정봉교, 김지연, 오유정(2003). 정동유형과 정적정서의 복원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실험**, 15, 499-519.
- 정인(2000). **부모의 양육태도와 중학생의 성취동기와의 관계**.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2013). **2013 제주교육통계연보**. 제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행정과.
- 조윤경(2011). **모애착과 학교적응의 관계: 낙관성을 매개변인으로**. 경인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효진, 안유선, 유주희(2012). 성인기 이행에서의 발달적 스트레스와 삶의 만족과의 관계에서 정체성획득의 조절효과 검증. **이원학술논집**, 8, 29-54.
- 좌현숙(2012). 연구논문 : 청소년 학교적응의 중단적 변화양상과 예측요인. **청소년학연구**, 19(6), 1-28
- 채영이(2006). **중학생의 애착과 자아존중감 및 학교생활적응의 관계**.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부일(2014). **중학생의 부모와의 애착관계와 학교생활적응 간 관계 연구 :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호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지영(2014). **감사성향, 정서조절곤란, 우울이 수형자의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경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하정혜(2011). **중학생의 외모만족도와 학교적응과의 관계에서 대인관계의 매개효과**. 계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한순선(2011). **부모애착이 학업스트레스와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경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홍선덕(2014). **대학생의 부모애착과 삶의 만족 사이의 관계에서 무조건적 자기수용의 매개효과**. 광주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홍세희(2000). 구조 방정식 모형의 적합도 지수 선정기준과 그 근거.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9(1), 161-177.
- 홍연희(2011). **부모의 애착이 아동의 사회적 유능감에 미치는 영향**.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홍진희(2013). **아동이 지각한 부모애착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정서지능의**

- 매개효과. 경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황아람(2010). 청소년의 부모애착과 심리적 안녕감의 관계 : 기본심리욕구의 매개효과. 성신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Adler, M. G., & Fagley, N. S. (2005). Appreciation: Individual differences in finding value and meaning as a unique predictor of subjective well-being. *Journal of Personality*, 73(1), 79-114.
- Ainsworth, M. S. (1989). Attachments beyond infancy. *American Psychologist*, 44, 709-716.
- Andrews, F. M., & Withey, S. B. (1976). *Social indicators of well-being: Americans' perceptions of life quality*. New York: Plenum Press.
- Armsden, G. C., & Greenberg, M. T. (1987). The 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 Individual differences and their relationship to psychological well-being in adolescenc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16, 427-453.
- Baumgarten-Tramer, F. (1938). "Gratefulness" in children and young people. *Journal of Genetic psychology*, 53, 53-66.
- Bowlby, J. (1969). *Attachment and loss*, 3(79). Pimlico.
- Bowlby, J. (1973). *Attachment and loss: vol 1. Separation: Anxiety and anger*. New York: Basic Books.
- Bowlby, J. (1988). *Asecure base: Parent-child attachment and healthy human development*. New York: Basic Books.
- Bretherton, I., Ridgeway, D., & Cassidy, J. (1990). The role of internal working models in the attachment relationship : can it be studied in three-years-old? In M. Greedberg, D., Cicchetti, & E. Cummin (EDS.), *Attachment during the preschool year: Theory, research and intervention*, 273-308. Chicago: Universary of Chicago Press.
- Campbell, A., Converse, P. E., & Rodgers, W. L. (1976). *The quality of American life: Perceptions, evaluations, and satisfactions*. New York: Russell Sage Foundation.

- Carver, C. S., & Scheier, M. F. (2005). *Perspectives on Personality* : 5th ed. (김교현, 심미영, 원두리 역, 성격심리학 : 성격에 대한 관점들). 서울: 학지사
- Diener, E. (1984). Subjective well-being. *Psychological Bulletin*, *95*(3), 542-575.
- Diener, E., & Fujita, F. (2005). Life Satisfaction set point : Stability and chang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8*(1), 158-164.
- Diener, E., Suh, E. M., Smith, H., & Shao, L. (1995). National differences in reported subjective well-being: Why do they occur? *Social Indicators Research*, *34*(1), 7-32.
- Emmons, R. A. (2004). Gratitude. In C. Peterson, & M. E. P. Seligman (Eds.), *Character strength and virtues* (pp.553-568). Oxford University Press.
- Emmons, R. A., & McCullough, M. E. (2003). Counting blessings versus burdens: An experimental investigation of gratitude and subjective well-being in daily lif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4*(2), 377-389.
- Emmons, R. A., & Shelton, C. m. (2002). Gratitude and science of positive psychology. In c. R. Snyder & S. J. Lopez (Eds.), *Handbook of positive psychology*(pp.459-471).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Folkman, S., & Moskowitz, J. T.(2000). Positive affect and the other side of coping. *American Psychologist*, *55*, 647-654.
- Fredirickson, B. L.(1998). What good are positive emotions? *Review of General Psychology*, *2*, 300-319.
- Graham, s. (1988). Children's developing understanding of the motivational role of affect: An attributional analysis. *Cognitive Development*, *3*, 71-88.

- Grief, E. B., & Gleason, J. B.(1980). Hi, thanks, and goodbye: More routine information. *Language in society*, 9, 59-66.
- Grossmann, K., Grossmann, K. E. & Fremmer-Bombik, E., Kindler, H., Scheuerer-Englisch, H., & Zimmermann, P.(2002). The uniqueness of the child-father attachment relationship: Fathers' sensitive and challenging play as a pivotal variable in a 16-year longitudinal study. *Social Development*, 11, 301-337.
- Hazan. C., & Shaver, P.(1987). Romantic love conceptualized as an attachment proc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2, 511-524.
- Holmes, J. (1993). *John Bowlby & Attachment Theory*. (이경숙 역, 존 볼비와 애착이론). 서울: 학지사
- Klein, M. (1957). *Envy and Gratitude*. New York : Basic Books.
- Laghi. F., & D'Alessio, M., & Pallini, S., & Baiocco, R. (2009). Attachment Representations and Time Perspective in Adolescence. *Soc Indic Res*(2009). 90, 181-194.
- Lopez, S. J.(2008). *Positive Psychology: Exploring the Best in People, Four Volumes*. (권석만, 임선영, 김기환 공역, 긍정심리학 인간의 최고 상태에 대한 탐구: 정서적 경험 활용하기). 서울: 학지사
- Ma, C. Q., & Huebner, E. S. (2008). Attachment relationships and adolescents' life satisfaction: Some relationships matter more to girls than boys. *Psychology in the Schools*, 45(2), 177-190.
- Main, M.(1996). Introduction to the special section on attachment and psychopathology; 2. overview of the field of attachment.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64(2), 237-243.
- McAdams, D.P., & Bauer, J. J.(2004). Gratitude in modern life: Its manifestations and development. In R. A. Emmons & M. E. McCullough (Eds.), *The psychology of gratitude* (pp.81-99).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McAdams, D.P., Reynolds, J., Lewis, M., Patten, A., H., & Bowman, P. J.(2001). When bad things turn good things turn bad: Sequences of redemption and contamination in life narrative and their relation to psychological adaptation in midlife adults and in student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7, 474-485.
- McCullough, M. E., Tsang, J., & Emmons, R. A. (2004). Gratitude in Intermediate Affective Terrain: Links of Grateful moods to Individual Differences and Daily Emotional Experienc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6(2), 295-309.
- McCullough, M. E., Emmons, R. A., & Tsang, J. A. (2002). The grateful disposition: A Conceptual and empirical topograph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2(1), 112-127.
- Newman, B. M., & Newman, P. R, (1984). Development through life a psychosocial approach. Dorsey Press.
- Nickerson, A. B., & Nagle, R. J. (2004). The influence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s on life satisfaction in middle childhood and early adolescence. *Social indicators Research*, 66(1-2), 35-60.
- Pavot, W., & Diener, E. (1993). Review of the satisfaction with life scale. *Psychological Assessment*, 5(2), 164-172.
- Rice K. G., Cunningham, T. J., & Young, M. B. (1997). Attachment to parents, *Social Behavior and Personality: An International Journal*, 39(4), 701-712.
- Ross, J., & Fuertes, J.(2010). Parental attachment, imterparental conflict, and young adultes emotional adjustment. *The counseling psychologist*, 38(8), 1050-1077.
- Rutter, M. (1985a). Family and school influences on behavioral development. *Journal of Child Psychology*, 26, 683-704.
- Rutter, M. (1985b). Family and school influences on behavioral development. *Journal of Child Psychology*, 26, 349-368.

- Shahyad, S., Ali Besharat, M., Asadi, M., Shir Alipour, A., & Miri, M. (2011). The relation of attachment and perceived social support with life satisfaction: Structural equation model. *Procedia-Social and Behavioral Sciences*, 15, 952-956.
- stenger, B. (2008). *An exploration of Attachment theory: links between relationships and emotionality*. Kean University of New Jersey.
- Stock, w. A., Okun, M. A., & Benin, M. (1986). Structure of subjective well-being among the elderly. *Psychology and Aging*, 1(2), 91.
- Thompson, R. A. (1998). Early socio personality development. In W. Damon & N. Eisenberg (Eds.),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5th ed.), Vol.3(pp.25-104). New York: John Wiley & Sons.
- Videon, T. M. (2005). Parent-child relations and children's psychological well-being: Do dads matter?, *Journal of family Issues*, 26(1), 55-78.
- Wallin, D. J. (2007). *Attachment in psychotherapy*. The Guilford Press.
- Watkins, P. C. (2004). Gratitude and Subjective Well-Being. In R. A. Emmons & M. E. McCullough (Ebs.). *The Psychology of Gratitude* (pp,167-192).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Watkins, P. C., Grimm, D. L., & Kolts, R. (2004). Counting your blessings: Positive memories among grateful persons. *Current Psychology*, 23(1), 52-67.
- Watkins, p. c., Woodward, K., Stone, T., & Kolts, R. L. (2003). Gratitude and happiness: Development of a measure of gratitude, and relationships with subjective well-being. *Social Behavior and Personality*, 31(5), 431-452.
- Weiner, B., & Graham, S. (1988). Understanding the motivational role of affect: life-span research from an attributional perspective. *Cognition and Emotion*, 3, 401-419.
- Weiss, R. S. (1982). Attachment in adult life. In Patkes, C. M., and

Stevenson-Hinde, J. (Ed.), *The Place of attachment in human Behavior*. New York: basic Books.

Wright, S. L., & Perrone, K. M. (2010). An examination of the role of attachment and efficacy in life satisfaction. *The Counseling Psychologist, 38*(6), 796-823.

<Abstract>

**Mediating Effect of Gratitude Disposition on Relationship
between Parent Attachment, Life Satisfaction and
School Adaption of High School Students**

Kim, Sun-heui

Major in Counselling Psychology,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Supervised by Professor Kim, Sung-bong

This study* aims to reveal mediating effects of gratitude disposition on a relationship between parent attachment, life satisfaction and school adaption of high school students, and the following study problems have been formulated.

Study Problem 1: Is there any relationship between parent attachment, gratitude disposition, life satisfaction and school adaption?

Study Problem 2: Could gratitude disposition mediate a relationship between father attachment, life satisfaction and school adaption?

Study Problem 3: Could gratitude disposition mediate a relationship between mother attachment, life satisfaction and school adaption?

In order to come up with answers for these study problems, female/male high school

* This thesis is a master's thesis in Education submitted to the committee of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of Jeju National University in August 2014.

students from five high schools situated in Jeju were chosen as subjects of the study.

At first, 634 subjects were surveyed on their parent attachment, gratitude disposition, life satisfaction and school adaption, and only 534 copies of the survey were used for the analysis.

For the study, the revised version (IPPA-R) of the Inventory of Parent and Pear Attachment (IPPA), developed by Armsden and Greenberg(1987) and adopted by Ok Jung (1998) was used, and the Korean Gratitude Questionnaire Six Item Form, developed by McCullough et al (2002) and adopted and validated by Gwon Sun Joong (2006) was used.

For the measurement of life satisfaction, the Satisfaction with Life Scale, developed by Diener et al (1985) and adopted by Kim Jung Hoh (2007) was used and the School Adaption Scale, developed by Kim Yong Rae (2002) was used for measuring the school adaption.

The collected data was subject to the structure equation modelling analysis, by using SPSS for Windows 18.0 and AMOS 20.0 program on the computer.

Results of the study indicate as the following.

First, there is a significant correlation between parent attachment, life satisfaction and school adaption. Also, father attachment is shown to have a positive relationship with gratitude disposition, life satisfaction and school adaption, and mother attachment is also revealed to have a positive relationship with gratitude disposition, life satisfaction and school adaption. Gratitude disposition is shown to have a positive relationship with life satisfaction and school adaption.

Second, a relationship between father attachment and life satisfaction could be completely mediated by gratitude disposition, and a relationship between father attachment and school adaption is also completely mediated by gratitude disposition.

Third, a relationship between mother attachment and life satisfaction could be partially mediated by gratitude disposition, and a relationship between mother attachment and school adaption is also partially mediated by gratitude disposition.

From these study results, it could infer that the educational intervention, made with the

consultation, in gratitude disposition could make more meaningful differences in terms with life satisfaction and school adaption in a relatively short period of time than intervention in stability of parent attachment, which cannot be changed in a short period of time.

부 록 목 차

부록1. 설문지	64
부록2. 모애착 척도	65
부록3. 부애착 척도	66
부록4. 감사성향 척도	68
부록5. 삶의 만족 척도	68
부록6. 학교적응 척도	69

<부록 1> 설문지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설문에 응답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설문지는 여러분이 평소에 가지고 있는 생활 전반에 대한 생각을 알아 보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응답하신 내용은 학문적인 연구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는 절대 사용되지 않으며, 응답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비밀을 보장합니다.

여러분의 협조는 또래의 청소년들을 보다 잘 이해하고, 바람직한 학교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각 문항에 대해 맞거나 틀린 답은 없으므로, 평소 여러분의 생각이나 상태를 가장 잘 나타내 준다고 생각되는 번호에 표시(O표 또는 √표)를 하시면 됩니다. 혹시 내용 중에 여러분과 관련이 없는 문항이 있다면, 가장 비슷하다고 판단되는 곳에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빠진 문항이 많은 설문지는 사용할 수 없으므로 가능한 모든 문항에 빠짐 없이 응답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과정 상담심리전공

지도교수 : 김 성 봉

연구자 : 김 선 희

▶ 먼저 아래 사항을 기록해 주십시오.

1. () 고등학교
2. 자신에게 해당되는 곳에 빠짐없이 O표 또는 √표 해 주십시오.
 - 1) 학년 ① 1학년 ② 2학년 ③ 3학년
 - 2) 성별 ① 남자 ② 여자

<부록 2> 모애착 척도

* 다음의 문항들은 여러분의 어머니 또는 어머니처럼 돌봐주시는 분(예: 할머니)에 대한 느낌에 관한 질문입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어머니와 같은 역할을 하시는 분이 한명 이상이라면(예: 친어머니, 새어머니), 여러분에게 가장 영향을 많이 끼친다고 느끼는 분을 생각하면서 질문에 응답하십시오. **각 문항을 잘 읽고, 그 문항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사실인지 숫자 하나에만 빠짐없이 O표 또는 √표 해 주십시오.**

번호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드물게 그렇다	가끔 그렇다	자주 그렇다	항상 그렇다
1	내 어머니는 나의 감정을 존중해 주신다.	1	2	3	4	5
2	내 어머니는 어머니로서 본분을 다하신다고 생각한다.	1	2	3	4	5
3	다른 분이 내 어머니였으면 좋겠다.	1	2	3	4	5
4	어머니는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주신다.	1	2	3	4	5
5	나는 걱정되는 일이 있을 때 어머니의 의견을 받아들이고 싶다.	1	2	3	4	5
6	어머니에게 나의 감정을 드러내봐야 소용없다고 생각한다.	1	2	3	4	5
7	어머니는 내가 어떤 일로 기분이 상했을 때 알아차리신다.	1	2	3	4	5
8	어머니와 함께 나의 문제를 상의할 때 나는 수치스럽고 바보 같다고 생각된다.	1	2	3	4	5
9	어머니는 내게 너무 많은 것을 바라신다.	1	2	3	4	5
10	나는 어머니와 함께 있을 때 쉽게 기분이 나빠진다.	1	2	3	4	5
11	나는 기분 나쁜 일이 있을 때 어머니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속상해 한다.	1	2	3	4	5
12	어떤 일에 대해 상의할 때 어머니는 나의 의견을 고려해 주신다.	1	2	3	4	5
13	어머니는 나의 판단을 신뢰하신다.	1	2	3	4	5
14	어머니는 어머니 나름대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 문제로 어머니를 귀찮게 하지 않는다.	1	2	3	4	5
15	어머니는 내가 자신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1	2	3	4	5
16	나는 어머니께 나의 어려움과 근심거리에 대해 말씀드린다.	1	2	3	4	5

번호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드물게 그렇다	가끔 그렇다	자주 그렇다	항상 그렇다
17	나는 어머니께 분노를 느낀다.	1	2	3	4	5
18	나는 어머니로부터 별 관심을 받지 못했다.	1	2	3	4	5
19	어머니는 내가 나의 어려움을 이야기하도록 격려 해주신다.	1	2	3	4	5
20	어머니는 나를 이해해주신다.	1	2	3	4	5
21	어머니는 내가 어떤 일로 화났을 때 이해하려고 노력하신다.	1	2	3	4	5
22	나는 어머니를 신뢰한다.	1	2	3	4	5
23	어머니는 내가 요즘 어떤 일을 겪는지 이해하지 못하신다.	1	2	3	4	5
24	내 마음의 부담을 떨쳐버리고 싶을 때 어머니께 의지할 수 있다.	1	2	3	4	5
25	만약 어머니께서 내게 고민거리가 있다는 걸 아신다면 나에게 그것에 대해 물어보신다.	1	2	3	4	5

<부록 3> 부애착 척도

* 다음의 문항들은 여러분의 아버지 또는 아버지처럼 돌봐주시는 분(예: 할아버지)에 대한 느낌에 관한 질문입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아버지와 같은 역할을 하시는 분이 한 명 이상이라면(예: 친아버지, 새아버지), 여러분에게 가장 영향을 많이 끼친다고 느끼는 분을 생각하면서 질문에 응답하십시오. **각 문항을 잘 읽고, 그 문항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사실인지 숫자 하나에만 빠짐없이 O표 또는 √표 해 주십시오.**

번호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드물게 그렇다	가끔 그렇다	자주 그렇다	항상 그렇다
1	내 아버지는 나의 감정을 존중해 주신다.	1	2	3	4	5
2	내 아버지는 아버지로서 본분을 다하신다고 생각한다.	1	2	3	4	5
3	다른 분이 내 아버지였으면 좋겠다.	1	2	3	4	5
4	아버지는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주신다.	1	2	3	4	5
5	나는 걱정되는 일이 있을 때 아버지의 의견을 받아들이고 싶다.	1	2	3	4	5

번호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드물게 그렇다	가끔 그렇다	자주 그렇다	항상 그렇다
6	아버지에게 나의 감정을 드러내보야 조용했다고 생각한다.	1	2	3	4	5
7	아버지는 내가 어떤 일로 기분이 상했을 때 알아차리신다.	1	2	3	4	5
8	아버지와 함께 나의 문제를 상의할 때 나는 수치스럽고 바보 같다고 생각된다.	1	2	3	4	5
9	아버지는 내게 너무 많은 것을 바라신다.	1	2	3	4	5
10	나는 아버지와 함께 있을 때 쉽게 기분이 나빠진다.	1	2	3	4	5
11	나는 기분 나쁜 일이 있을 때 아버지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속상해 한다.	1	2	3	4	5
12	어떤 일에 대해 상의할 때 아버지는 나의 의견을 고려해 주신다.	1	2	3	4	5
13	아버지는 나의 판단을 신뢰하신다.	1	2	3	4	5
14	아버지는 아버지 나름대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 문제로 아버지를 귀찮게 하지 않는다.	1	2	3	4	5
15	아버지는 내가 자신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1	2	3	4	5
16	나는 아버지께 나의 어려움과 근심거리에 대해 말씀드린다.	1	2	3	4	5
17	나는 아버지께 분노를 느낀다.	1	2	3	4	5
18	나는 아버지로부터 별 관심을 받지 못했다.	1	2	3	4	5
19	아버지는 내가 나의 어려움을 이야기하도록 격려해 주신다.	1	2	3	4	5
20	아버지는 나를 이해해주신다.	1	2	3	4	5
21	아버지는 내가 어떤 일로 화났을 때 이해하려고 노력하신다.	1	2	3	4	5
22	나는 아버지를 신뢰한다.	1	2	3	4	5
23	아버지는 내가 요즘 어떤 일을 겪는지 이해하지 못하신다.	1	2	3	4	5
24	내 마음의 부담을 떨쳐버리고 싶을 때 아버지께 의지할 수 있다.	1	2	3	4	5
25	만약 아버지께서 내게 고민거리가 있다는 걸 아신다면 나에게 그것에 대해 물어보신다.	1	2	3	4	5

<부록 4> 감사성향 척도

* 다음의 문항들을 주의 깊게 읽고, 각 문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숫자 하나에만 빠짐없이 0표 또는 √표 해 주십시오.

번호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약간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내 삶에는 감사할 거리가 매우 많다.	1	2	3	4	5	6	7
2	내가 지금까지 감사했던 모든 것들을 목록으로 작성한다면, 그 길이가 매우 길어질 것이다.	1	2	3	4	5	6	7
3	세상을 둘러볼 때, 감사할 것들이 별로 없다.	1	2	3	4	5	6	7
4	나는 여러 사람에게 고마움을 느낀다.	1	2	3	4	5	6	7
5	나이가 들어갈수록, 지금까지 나의 삶에서 만난 사람들과 사건, 상황들에 대해 더욱 고마움을 느낀다.	1	2	3	4	5	6	7
6	지금까지 내가 만난 사람이나 상황에 고마움을 느낀 적이 별로 없다.	1	2	3	4	5	6	7

<부록 5> 삶의 만족 척도

* 다음의 문항들을 주의 깊게 읽고, 각 문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숫자 하나에만 빠짐없이 0표 또는 √표 해 주십시오.

번호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약간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전반적으로 나의 인생은 내가 이상적으로 여기는 모습에 가깝다.	1	2	3	4	5	6	7
2	내 인생의 여건은 아주 좋은 편이다.	1	2	3	4	5	6	7
3	나는 나의 삶에 만족한다.	1	2	3	4	5	6	7
4	지금까지 나는 내 인생에서 원하는 중요한 것들을 이루어냈다.	1	2	3	4	5	6	7
5	다시 태어난다 해도, 나는 지금처럼 살아갈 것이다.	1	2	3	4	5	6	7

<부록 6> 학교적응 척도

* 다음의 문항들은 여러분의 학교생활에 대한 질문입니다. 각 문항을 잘 읽고, 자신의 행동이나 생각과 가장 가까운 것에 빠짐없이 O표 또는 √표 해 주십시오.						
번호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드물게 그렇다	가끔 그렇다	자주 그렇다	항상 그렇다
1	나는 학교생활에서 요구하는 일들을 잘 따른다.	1	2	3	4	5
2	나는 학교의 모든 행사에 즐거운 마음으로 반드시 참여한다.	1	2	3	4	5
3	나는 학교에서 마련한 시설이나 비품들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생활한다.	1	2	3	4	5
4	나는 학교에서 나에게 주어지는 일을 차질 없이 해나간다.	1	2	3	4	5
5	나는 친구들과 학교에서 즐겁고 재미있게 지낸다.	1	2	3	4	5
6	나는 학교에서 부여하는 준비물을 반드시 준비한다.	1	2	3	4	5
7	나는 우리학교에 다니면서 공부하고 있는 것을 매우 만족스럽게 생각한다.	1	2	3	4	5
8	나는 교내의 안내게시물을 잘 살피고 교내방송을 주의 깊게 듣는다.	1	2	3	4	5
9	나는 우리 학교의 모든 구석구석이 나의 마음에 흡족하다.	1	2	3	4	5
10	나는 지금 다니고 있는 우리 학교 주변 환경에 만족하고 있다.	1	2	3	4	5
11	나는 우리 학교 내에 있는 어느 공간에 대해서든 편안함을 느낀다.	1	2	3	4	5
12	나는 우리 학교환경을 다른 학교 친구들에게 자랑한다.	1	2	3	4	5
13	나는 우리 학교에서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가지고 공부하고 있다.	1	2	3	4	5
14	나는 우리 학교에서 마음 편하게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	1	2	3	4	5
15	나는 우리 학교가 공부하기에 좋은 환경이라고 믿는다.	1	2	3	4	5
16	나는 지금의 학교환경에서 공부하고 있는 것을 다행으로 생각한다.	1	2	3	4	5
17	나는 학교에서 어떤 친구들에게나 친절하게 대한다.	1	2	3	4	5

번호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드물게 그렇다	가끔 그렇다	자주 그렇다	항상 그렇다
18	나는 나를 이해하고 아끼는 우리 학교 친구들이 많다고 생각한다.	1	2	3	4	5
19	나는 나의 문제에 우리 학교 친구들의 도움을 많이 받는다.	1	2	3	4	5
20	나는 우리 학교 친구 중 어려움을 당하면 잘 도와준다.	1	2	3	4	5
21	나는 학교에서 어떤 일로 친구와 다투는 경우면 내가 먼저 사과한다.	1	2	3	4	5
22	나는 우리 학교 친구들을 사랑하고 의지한다.	1	2	3	4	5
23	나는 내 고민거리를 우리 학교 친구와 제일 먼저 의논한다.	1	2	3	4	5
24	나는 학교에서 선생님들과 편안하게 이야기하고 의논한다.	1	2	3	4	5
25	나는 학교 밖에서 우리 학교 선생님을 만나면 반갑게 인사를 한다.	1	2	3	4	5
26	나는 편애 없이 공평하고 친절하신 우리 학교 선생님들을 존경한다.	1	2	3	4	5
27	나는 우리 학교 선생님들이 친구처럼 다정함을 느낄 때가 많다.	1	2	3	4	5
28	나는 우리 학교에 나를 이해하고 인정하는 선생님이 계신다고 믿는다.	1	2	3	4	5
29	나는 학교 내에서 마음 놓고 이야기 할 수 있는 선생님이 계신다는 것을 감사한다.	1	2	3	4	5
30	나는 열심히 가르치시는 우리 학교 선생님들에게 감사하고 있다.	1	2	3	4	5
31	나는 우리 학교 선생님들이 자상하고 가까이하기에 부담이 없다고 느낀다.	1	2	3	4	5
32	나는 우리 학교 선생님들이 부모처럼 느껴진다.	1	2	3	4	5
33	나는 학교에서 수업시간 동안에는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듣는다.	1	2	3	4	5
34	나는 수업시간에 선생님의 질문에 편안한 마음으로 대답한다.	1	2	3	4	5
35	나는 학교 수업시간에 배운 내용을 그 시간에 이해한다.	1	2	3	4	5
36	나는 우리 학교 내에서의 생활이 즐겁다.	1	2	3	4	5

번호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드물게 그렇다	가끔 그렇다	자주 그렇다	항상 그렇다
37	나는 어떤 교과목의 수업시간에도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다.	1	2	3	4	5
38	나는 학교 수업내용에 대해 언제나 예습하고 복습하는 편이다.	1	2	3	4	5
39	나는 학교에서 수업시간에 배우는 내용을 빠짐없이 잘 정리하고 있다.	1	2	3	4	5
40	나는 학교의 모든 교과목 수업에 대해서 나의 최선을 다하고 있다.	1	2	3	4	5
41	나는 학교에서 제일 중요한 일은 수업활동이라고 믿는다.	1	2	3	4	5

♣여러분의 성실한 응답에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

☞ 설문지에 대해 궁금한 내용이 있거나, 연구 결과를 알고 싶으신 분은 이메일을 남겨주세요.

()